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뉴스레터 No. 12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NEWSLETTER
No. 12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4년 상반기 뉴스레터

환경대학원 개원 40주년 기념행사

학교소식

- 1 학술/연구/교류
- 2 환경계획연구소 활동
- 3 수업소개
- 4 교수동정
- 5 석·박사과정
- 6 도시·환경 최고위과정

동문소식

- 7 동창회
- 8 석·박사 과정 동문 동정
- 9 고위정책과정 동문동정

환경대학원 발전기금



	환경대학원 개원 40주년 기념행사	3
학교소식	학술/연구/교류	13
	환경계획연구소 활동	24
	수업소개	32
	교수동정	33
	석·박사과정	40
	도시·환경최고위과정	43
동문소식	동창회	45
	석·박사과정 동문동정	48
	고위정책과정 동문동정	49
	환경대학원 발전기금	51

환경대학원 개원 40주년 기념행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이 개원 40주년을 맞이하여 '생명과 삶의 지식공동체'라는 주제로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기념행사를 하였다. 환경대학원은 대한민국의 성공적 근대화에 기여하여 온 지난 40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또 다른 40년을 준비하기 위해 융·복합, Glocal, 소통협력을 매개로 하는 공간의 가치창출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 비전을 실현해나가기 위해 발전기금 모금도 활발하게 펼칠 예정이다. 40주년 기념행사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날짜	시간	행사명
10/21(월)	10:00~	40주년 기념전시, 어제 오늘 내일
10/22(화)	13:00~17:00	도림천의 재발견
10/23(수)	15:10~17:00	일일교사 재능기부
10/24(목)	13:30~17:30	Talk 서울대, 머물고 싶은 캠퍼스 만들기
10/25(금)	10:00~16:30	국민행복, 공간에게 길을 묻다
	16:45~17:00	기념식수
	17:00~18:00	40주년 기념식
	18:00~	동문 홈커밍 행사

40주년 기념전시, 어제 오늘 내일

환경대학원 개원 40주년 기념행사 개회식이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환경대학원 82동 2층 P&C Hall에서 열렸다. 한 주 동안 진행되는 환경대학원 40주년 행사의 시작을 축하하는 개회식은 손용훈 교수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으며 환경대학원장, 부원장, 양 학과장과 학생회장 등의 참석 하에 테이프 커팅식이 이루어졌다. "40주년 기념전시,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환경대학원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 상영되었다.

개회식이 끝난 이후에도 40주년 기념 동영상은 행사기간 일주일 내내 2층 로비에서 상영되었다. 전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40년간의 환경대학원의 비전과 역사를 담은 '환경대학원 교육역사', 40년의 한국 도시성장을 다룬 '환경대학원과 함께한 도시성장', 개원 이후 환경대학원 사람들의 추억을 주제로 한 '환경대학원 인물과 기억'으로 구성되었다. 본 전시 기획 및 제작은 이석정 교수(환경계획학과)와 손용훈 교수(환경조경학과), 환경대학원 40주년 준비 위원회가 담당하였다.



도림천의 재발견

환경대학원 개원 40주년 기념행사 둘째 날인 10월 22일(화) 오후 1시에 '도림천의 재발견' 학술대회가 열렸다. 손용훈(환경조경학과) 교수의 진행과 유종필 구청장의 축사로 시작하였다. 유종필 구청장은 파리에 센 강, 런던에 템스 강이 있다면 서울시 관악구에는 도림천이 있으며, 관악구 주민,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와의 합작 사업을 통해 모두 'win-win' 윈윈할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이어진 환경대학원장의 축사에서 최막중 원장은 글로벌과 함께 로컬, 즉 지역 장소의 특성을 이해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더욱 나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슈라고 밝혔다. 오늘의 학술대회가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하며, 유종필 구청장의 저서인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와 같이 다른 하천과는 또 다른 도림천의 발전을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김경민(환경계획학과) 교수는 '도림천 주변의 도시기능 변화'에 대해 발표하였다. 1975년 서울대 관악캠퍼스와 남부순환로 건설로 면과 선을 경계로하는 작은 단위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기사에 따르면 서울대 주변 상권이 신림동(현 녹두거리)에서 시작하였고, 고시촌은 1990년대 3만여 명의 미래의 희망을 준비하는 긍정적인 장소로 알려졌을뿐만 아니라, 단절된 물리적 공간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보였다. 1982년 지하철 2호선 개통으로 서울대입구역과 낙성대역 일대는 교대, 강남으로의 대중교통 접근성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하면서 도시기능의 변화가 나타났다. 현재 신림재정비촉진지구와 2호선 주변의 신규 건물들에 비하여 낙후된 신림시장과 봉천역 인근의 썩고개시장 등은 작은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고시제도의 축소폐지로 인한 업종의 변화와 직장인의 등장과 원룸 및 투룸의 리모델링이 이슈이며, 시장 메커니즘 역시 바뀌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도림천 유역의 도시화와 수문구조 변화'를 발표하였다. 도림천 유역의 변화를 보기 위해 복개된 대방천, 봉천천(기숙사에서 낙성대에 이르는) 두 개의 법정 하천을 대상으로 1976년과 2009년의 도로망도와 토지이용(개발지와 비개발지로 분류), 하천도, 우수거 등의 지표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도림천 분류 지천의 복개 현황과 하천의 연결구조를 파악하고 흐름을 추적하였다. 서울대 내 두 개의 지천을 순환도로 바깥으로 돌리기 위하여 버들골 사방댐과 공대 폭포 주변 대형 우수거를 설치한 결과, 유량과 유속이 증가하였고 이는 2011년 교내 수해 피해를 발생시켰다(지점 일치). 난곡, 봉천천, 도림천 분류 상류 소유역이 세 하천의 연결성을 복원하기 위한 시나리오 방법을 통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앞으로 외관 중심의 복원사업을 지양하며 유량확보 방안과 지역 특성을 살린 장기적 도시 계획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정성국 관악구 도시계획과장은 '도시하천의 주민이용: 도림천 명소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도시하천은 도심 속 자연으로서 오픈스페이스, 경관구성요소, 생태공간의 역할을 한다고 말하였다. 서울시 청계천 복원사업과 성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호주 멜버른 비라롱 마르 공원, 싱가포르 녹지축 등 국내·외 수변문화 조성 사례를 들었다. 조선시대 말을 기르던 양마장이 있었던 것에서 유래하여 마장천으로 불리던 도림천은 1970~80년대 잦은 집중호우로 인하여 하천 범람, 이재민 발생, 교량 붕괴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는 근대 산업화 과정에서 도로 및 주차장이 건설되며 복개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임을 지적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7~10년 동안 관악구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시행하였고 자전거도로, 야외무대, 물놀이장 등을 설치하였고 음악회와 월 1회 영화상영 등 주민 활동의 장이 되도록 조성하였다. 도림천 명소화를 위하여 1) 친수공간 조성(관악산-도림천 연결사업, 복개구간 환경개선사업, 반복개구간 정비사업, 도시구조물 경관정비 사업, 빗물펌프장 벽면 경관개선사업, 도림천 진출입 개선사업), 2) 보행 활성화(신사동 초록풍경길 조성사업, 신림3교-신화교 차도폭 조정사업, 도림천 벚꽃 10리길 조성사업, 청룡산 녹지 네트워크 조성사업, 에코브릿지 설치사업), 3) 문화와 스토리텔링(순대타운 및 주변 지역 정비사업, 고시촌 이야기길 조성사업, 강감찬 장군 이야기 등) 구축 등을 2020년까지 세 단계에 걸쳐 지속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김세훈(환경조경학과) 교수는 '도림천과 도시성: 청계천과 어떻게 다른가'를 발표하였다. 발표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반복되는 일상성의 아름다움 - 청계천에 비해 도림천은 일상의 공간으로 참여 빈도가 높다. 도림천 배후 지역은 학원, 시장 등 유쾌하고 편안한 일상성이 존재한다. 2) 지형적 역동성과 도시 파노라마 - 경사지가 갖는 통행의 불편함이 있겠지만 자연스러운 생활공간이고, 굽이친 도로, 보행전용 계단 등 다양한 형태의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건물 군집을 보면 전체 지형의 일부로서 구릉지의 특징을 담아내고 있다. 3) 앞으로의 과제 - 고시촌의 꿈과 더불어 다시금 희망의 공간이 되기를 바라본다.



발제자들의 발표에 이어 이도원(환경계획학과) 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장(AIEES)의 사회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네 명의 패널을 모시고 토론이 이루어졌다. '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주민모임'의 김태현 사무국장은 너무 많은 녹지 공간과 도림천, 관악산 등이 훼손된 것에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성장의 절차일 수 있지만, 생태 환경에 대한 이해와 보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서울대와 관악구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질 것을 촉구하였다. 인공적 조형물 설치보다 환경개선에 대한 고민이 먼저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옥주(농생대 조경학과) 교수는 디자인 설계적 관점에서 도림천은 자연하천이 아닌 도시하천으로서 공원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청계천은 관광지이고 도림천은 근린공원이므로 사례 따라하기, 흉내내기가 아닌 도시적 맥락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거시적 관점에서 조밀한 신림동과 도림천과 함께 흐르는 교통 도시구조물,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시적 관점에서는 악점을 인정하되 조명(빛), 플라주 효과 등을 이용하여 기반시설로써 콘크리트의 재질을 효과적으로 보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나경채 관악구의회 의원은 고시촌의 '위

기에 대해 의문을 품으며 인구 통계를 살펴보았다. 대학동에서 고시생의 감소가 있지만 실제로 청년, 직장인, 1인가구 유입 등 인구가 약간 증가하였다. 오히려 정책권자가 능동적으로 반응하지 못하였다는 것에서 '위기감'이 비뚤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40주년 기념으로 거대 담론이 아닌 지역 하천을 주제로 삼은 것에 대해 놀랍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학문, 민간, 관의 협력이 이루어져 비상업적 전망과 비전을 공유해야 할 것이며, 단기, 중장기 과제를 수행하며 지속적 관심이 계속되기를 기원한다 말하였다. 박은진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박사논문 작성 중 '왜 도림천인가'에 대하여 고민이 많았다고 하였다. 자연형 하천의 샘플을 채취하고 연구한 입장에서 생태적 서비스를 도모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1985~98년까지 신림동에 거주하였던 과거를 떠올려 보면서 공간의 범위와 도림천을 연결짓는 고리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저영향 개발기법 LID을 활용하여 실개천 복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토론에 이어 참석자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신림동의 공실률과 고시생의 감소는 퇴행이라고 생각하며, 1인 가구 증가가 어떠한 발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박사과정 학생의 반론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경민 교수(환경계획학과)는 소수의 특정 계층(고시생)이 한정된 공간(고시촌)에 모여 있기에 과거 비뚤된 임대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느껴지는 상대적 위기라고 밝혔다. 고시생 커뮤니티가 부재하고, 대학촌 문화가 없기에 새로운 주거 문화가 탄생하여야 하는데 지역기반 사회적 기업이 그 역할을 대신 할 수 있을 것이라 반박하였다. 관악구 50만 인구가 장기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특히 경제적 지속성에 있어서 큰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가리봉동, 이화동 등 다른 지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순환 체계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관악산자락에 위치한 서울대의 역할과 태도에 대하여 반문하였다. 정성국 관악구 도시계획과장은 심포지엄에 나온 내용을 정리하여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정치 의회와 행정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훈(환경조경학과) 교수는 고 김수근 건축가의 '작은 공간일수록 나눠 쓰고, 큰 공간은 하나로 쓰라'는 말을 인용하며, 도림천을 파편화하기보다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 것을 강조했다. 도시, 조경 등 설계는 사람이 하는 영역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게 한 계기가 되었다고 마무리하였다.

일일교사 재능기부

성보고등학교 김세훈, 이희연 교수



환경대학원 교수들의 "일일교사 재능기부"가 관악구 소재의 성보고등학교와 남강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10월 23일 성보고등학교에서는 이 학교 1, 2학년 학생들 40명을 대상으로 김세훈 교수(환경조경학과)와 이희연 교수(환경계획학과)의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김세훈 교수는 '공부로 인한 피로와 도시로의 탈출'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한창 공부하느라 힘든 고등학교 생활에서 활력을 찾기 위해 멀리 갈 필요 없이 가까운 곳을 걸어 다니며 자신이 사는 동네를 주의 깊게 둘러보라는 내용을 전했다.

이희연 교수는 '성공적인 자신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꿈'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꿈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하며 결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강연하였다. 이날 일일교사 재능기부 행사는 평소라면 만나기 어려웠을 고등학생과 대학교 교수라는 관계를 연결해주는 장이었으며, 어린 학생들의 기운을 북돋아 주고 꿈을 심어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성보고 학생들은 교과 수업 이외의 강연임에도 메모까지 해가며 집중해서 열심히 듣는 모습이었으며, 일일교사 재능기부에 참여한 교수들도 짧게나마 원하는 학생들의 상담을 해주는 열의를 보였다. 강연이 끝난 이후에는 뜻깊은 만남을 기념하며 성보고 학생들에게 환경대학원 40주년 기념품을 전달하였다.



남강고등학교 이동수, 윤순진 교수



같은 시각 남강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일일교사 재능기부'에서는 이동수 교수(환경계획학과)와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의 강연이 있었다. 이동수 교수는 '휴대전화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100가지 방법'에 대하여 강연하였다.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 연구소 IARC 조사 결과 휴대전화의 전자파가 암에 미치는 영향이 Group2B에 해당하여 상당히 높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휴대전화의 전자파는 800~2,000MHz에 달하는데 이것은 전자레인지 Microwave Oven 2,450MHz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스마트폰이 수막종, 청각신경계, 유전자, 세균에 의한 염증, 알레르기 등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용 과정을 포함해 상품의 생산 과정과 폐기 후의 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 계속되었다. 마이크로칩 하나에 2,000여 가지 이상의 물질이 들어가는데 금을 비롯하여 탄탈, 석유, 실리콘 등과 500~1,000여 종의 독성화학물질이 포함된다. 청정실(클린룸)은 제품의 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 인식의 전환을 알렸다. 특히, 콜탄이라는 광물에서 추출되어 사용되는 '탄탈'은 콩고민주공화국 반군의 점령지에서 나온 것으로 활동자금의 수단이 된다. 학생들은 휴대전화 한 대를 사용하는 것이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의 고릴라의 서식지까지 연결된다는 것에 놀라워하였다. 휴대전화의 짧은 수명과 기업의 전략은 전자폐기물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진다. 도시쓰레기의 3배에 달하는 양으로 폐전자제품의 처리와 처분 역시 이슈이다. 또한, 전자폐기물은 '재활용'이라는 명목으로 개발도상국에 수출된다. 인도, 파키스탄, 멕시코 등으로 가는데 특히, 중국 꾸이 위 Gui Yu의 매년 수백만 톤의 전자폐기물 용접, 소각 등 처리 과정으로 인한 환경오염 사진은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Our Stolen Future, 1996(『도둑맞은 미래』로 번역 출간됨)』를 읽어볼 것을 추천하였다. 한 뼉 띄어 통화하기, 이어폰 사용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 및 신제품에 현혹되기보다는 오래 쓰고 적게 쓰기를 권유하였다.

이어서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의 '기후변화시대 현명하게 살아가기'가 이어졌다. 2011년 7월 대치동 침수 사진과 2009년 미국 뉴올리언스 카트리나 피해 사진으로 시작되었다. 2012년 세계 이상기후 발생 분포도(출처: 관계부처합동)를 통해 범지구적으로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과 앨 고어 전 미국 대통령 후보와 IPCC의 노벨상 수상 이유를 들어 환경에 대한 관심과 정당성을 알렸다. 대선 과정 중 허리케인 샌디의 뉴욕 강타 결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지지했던 오바마가 우세하게 된 사례와 방글라데시의 가뭄, 우리나라 제주 한라봉, 보성 녹차 재배지의 지역 상승 등 재미있는 일화로 흥미를 더하였다. 2100년 우리나라 해안 침구 가능 지역(KEI, 2013)에 의해 송도, 새만금, 목포 등이 잠긴다는 예측과 전 세계 CO₂ 지도로 생활 습관의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합리적인 소비자 주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소비할 것을 주장하였다. 계절의 차이를 인정하며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대기전력 절감하기(플러그 뽑기, 멀티탭 사용)를 촉구하였다. 너와 나, 우리 모두가 에너지 보안관이 되어 손수건 쓰기, 내복 입기 등 실천적 삶을 살 것을 당부하였다.



Talk 서울대, 머물고 싶은 캠퍼스 만들기

환경대학원 개원 40주년 기념행사 넷째 날인 10월 24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간에 걸쳐 "Talk 서울대, 머물고 싶은 캠퍼스 만들기"가 환경대학원 306호에서 열렸다. 김세훈 교수(환경조경학과) 사회로 진행된 이 세미나는 실제 토크쇼처럼 앉아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서울대 캠퍼스와 관련된 까닭에 시작부터 끝까지 장내를 가득 메울 정도로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과 뜨거운 열기를 엿볼 수 있었다. 재학생과 교수들은 물론 본부 교직원들과 인터뷰 대상자들이 참석하여 보다 더 나은 서울대 캠퍼스를 만들기 위한 논의에 모두 큰 관심을 보였다.

이유미 교수(환경조경학과)와 박상현(환경조경학과 석사) 학생이 '건고 싶은 서울대 캠퍼스 만들기'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하였다. 이유미 교수는 단과대별 보행 동선과 보행량 등을 파악해 만든 보행 지도를 선보였으며, 이러한 패턴 분석이 학내 보행환경 개선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박상현 학생은 보행 구간과 보행 속도에 따른 운동 효과를 알려주는 캠퍼스 열량 지도, 테마에 따라 보행로를 추천해주는 지도 등을 제안하며 학내 보행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김경민 교수(환경계획학과)와 류종필(환경계획학과 석사) 학생이 '경계를 넘어서: 관악, 그리고 서울대'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김경민 교수는 시카고 예술대학의 지역 재생 사업, 하버드 대학의 캠퍼스 확장과 수익 모델 등의 사례를 들면서, 서울대도 관악구 일대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개방형 캠퍼스를 지향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류종필 학생은 신림동 고시촌의 슬럼화 문제를 지적하며 대학 문화의 거점 기능 회복을 위해 고시촌과 서울대입구역에 외부 기숙사를 두는 웨어하우스형 기숙사를 제안하며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세 번째, 홍중호 교수(환경계획학과)와 김대수(환경계획학과 석사) 학생이 '깨끗하고 따뜻한 캠퍼스-난방 및 분리수거 정책 평가'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홍중호 교수는 학내에서 두 번째로 설문 응답률이 높았던 서울대학교 난방 관련 설문조사를 정리한 내용을 통해 현 난방 시스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겨울철 전력 부하가 심한 현재의 EHP 난방 시스템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GHP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열병합발전소의 도입과 학내 에너지 손실이 많은 곳에 대한 개보수 작업을 제안하였다. 김대수 학생은 중앙도서관과 중앙전산원 내 쓰레기 분리수거함의 디자인을 바꾸는 것만으로 분리수거율이 크게 높아졌던 실험결과를 통해, 학내 쓰레기 분리수거가 적은 노력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문제임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장수는 교수(환경계획학과)와 이승한(환경계획학과 석사) 학생의 '캠퍼스 교통체계와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장수는 교수는 차량 운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량 동선을 파악하고 적정 규모의 거점주차장을 설치하여 노면의 주차 차량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낙성대 방향에서 캠퍼스로 들어오는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새로운 캠퍼스 출입문 마련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이승한 학생은 캠퍼스 안전이라는 주제로 실험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학내 구성원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는 다섯 곳을 선정하여 모스그래피티, 메시지 월 등을 직접 설치해 안전하고 활기가 넘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으며, 지그재그 차선을 통해 차량 통행 속도가 실제로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발표 이후에 있었던 토론 시간에는 이우주현 한겨레21 기자, 공병영 서울대학교 시설국장, 김승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유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학생회장, 홍희영 관악구청 일자리사업 과장, 이은호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양병이 환경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유민 환경대학원 학생회장과 이은호 총학생회 부회장은 재학생의 입장에서 더 나은 서울대 캠퍼스에 대한 바람을 전했으며, 환경대학원 동문이기도 한 이우주현 기사는 이러한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계속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환경대학원 건물을 설계하기도 했던 김승희 교수는 학내 마스터플랜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실행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관악구청 홍희영 과장은 서울대학교가 지역사회를 품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하였으며, 공병영 서울대 시설국장은 보행로, 지역사회, 난방, 교통이라는 주제별 발표 및 제안에 대해 학교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답변을 해주었다.

국민행복, 공간에게 길을 묻다

환경대학원 개원 40주년 기념행사 다섯째날인 10월 25일(금) 오전 10시, 환경계획연구소 주최, 경암교육문화재단 후원으로 '국민행복, 공간에게 길을 묻다'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최막중 환경대학원장의 축사와 조경진 환경대학원 부원장의 사회로 1부가 시작되었다.

변창홍(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복과 공간적 정의' 주제로 발표하였다. 최근 국가주도의 행복 프로젝트와 공간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으며, 한국은 소득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라는 형평성 가치가 행복에 결정적 요소임을 밝혔다. 행복증진을 위하여 탈상품화와 공익-공생의 가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다. 더불어 적절한 공간단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다중심 거점을 육성하여 공간의 균형을 실현할 것과 지역등급제를 추진하여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주거안정을 위한 저렴한 주택의 확대와 공공임대주택 배분의 원칙과 기준이 정립되어야 함을 말하며 결론지었다. 토론자였던 이영범(경기대 건축대학원) 교수는 최근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행정주도로 제도화, 사업화되고 있고 이를 시민사회가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 물었다. 주체의 스케일(국가, 지역, 마을 차원)이 다르므로 실천 방안 역시 같은 스케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하였다. 또한 정부의 크고, 작음에 대한 것보다 해당 관 또는 공이 관리할 수 있고 투명하게 운영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두번째 질문의 답으로, 주택 바우처는 그 쓰임새를 추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말하며 주거는 단지 집만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수도, 교통 및 인프라와 연결되는 것으로 안정을 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대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동성(mobility)은 이것이 가능한 일부 고소득자들만이 가능한 것이기에 이를 약화시켜 정주성을 늘리는 것이 부의 절대적 총량이 개인에게 분배되도록 지역 내 행정 모델 도입이 필요함으로 귀결되었다.

전상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국민행복의 공간인문사회학'을 통해 행복에 대한 논의를 공간 담론, 공간계획의 맥락에 접목하고자 하였다. 동양에 존재하지 않던 행복, 서양의 Hap(우연)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영국 공리주의 사상이 벤담으로 인하여 객관적 실체로, 사회적 노력으로 성취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달리, 인류학자 홀(2002)에 따르면 '공간은 모든 생명체, 특히 인간에게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조직화 방식 가운데 하나'로써 '숨겨진 차원(hidden dimension)에 존재하는 침묵의 언어(silent language)'라 하였다. 세 가지 대표인 공간, 주거, 도시, 이동공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공간계획에 대한 아카데미의 리더십 부재, 관련 학계의 자율성 취약 등의 문제가 있다. 건설이 건축보다, 공학이 인문학보다 우선시되는 현실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공간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사유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거듭 말하며 발표를 일단락 지었다. 토론자인 로버트 파우저 교수(국어교육과)는 '국민행복'이라는 단어가 미국인으로서 전체주의적으로 다가옴을 고백하였다. 인지적 관점에서 공간을 접할 때 어떠한 현상이 있는지, 과거에 대한 상호관계인 기억과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을 밝혔다. 서촌 어락당(語樂堂) 한옥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한국적 정체성 가득한 공간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기를 바랐다.

정재승 교수(한국과학기술원 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의 '신경건축학: 행복한 공간을 뇌에게 묻다'가 이어졌다. 신경건축학 학자들은 행복한 순간 분비하는 세로토닌 신경전달물질의 양을 측정하여 인간이 언제, 어떠한 공간에서 행복한지,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개념을 측정 가능한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하였다. '자연친화 가설 Biophilia Hypothesis'과 결합된 친환경적 건축, 명상 Meditation 가능한 힐링 스페이스가 필요한 것이다. 가구 배치(침대를 가장자리로, 테이블은 중앙에)와 적절한 색 사용은 공간적 효율만이 아닌 심리적 안정을 위한 것이며, 서로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전환(Mindset shift)과 공간의 이동이 필요하다고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토론자인 최인철 교수(심리학과)는 행복연구센터장으로서 행복함을 느끼는 행동을 조사해 본 결과, 여행, 대화하기, 맛있는 것을 먹을 때인 반면, 일을 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는데 이에 비해 일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행복함을 덜 느낀다 하였다. 시각적 장치뿐만 아니라 청각, 즉 소음을 줄이는 것 역시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정서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영감을 느끼고, 경외감을 경험하는 것 등) 역시 행복함을 증진시키는 한 방법이라고 말하였다.



학술 심포지엄 “국민행복, 공간에게 길을 묻다” 2부는 같은 장소에서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되었다. 2부 행사는 이희연 교수(환경계획학과)가 사회를 맡았다.

이석정 교수(환경계획학과)는 ‘공공공간 설계와 일상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석정 교수는 설계가 중요하지만 설계보다 계획이 위주인 현실을 지적하며 도시가로망이 불안정한 것과 도시 건축이 부재한 것도 문제라고 언급하였다. 도시 공간에 좋은 가로를 만들려면 질서를 부여해야 하며 가로시설물 디자인 등에는 사회적 가치가 들어가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가로 공간의 질서와 다양성을 위한 설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토론자인 박소현 교수(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이제는 외국의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좋은 길은 어디인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으면서 상향식 방식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성종상 교수(환경조경학과)는 ‘조경의 녹색위상학: 그린을 통한 건강·행복 증진’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성종상 교수는 그린에 갖는 회복 능력에 대해 그동안 이루어진 많은 연구결과들을 소개하면서 이를 녹색 건강 위상학이라 명명하였다. 더 나아가 녹색 건강 위상학이 육체적, 생리학적, 정신적, 심리적/감정적, 사회적 측면에서 갖는 가치에 대하여 논하였다. 토론자인 오성훈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연구위원은 현대사회는 생존의 문제가 심각하며 그 이유로 생태학적 고려나 인간적인 고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개별적으로 아무리 좋더라도 통합이 되지 않는다면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인간과 자연이 잘 연결되는 방식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세 번째는 ‘여성의 삶을 지원하는 도시공간구조’라는 주제로 이선영(서울시립대 건축학과 교수)가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입원 중이어서 미리 촬영한 동영상상을 통해 발표를 대신하였다. 이선영 교수는 커뮤니티 서비스 허브는 집중의 원칙에 의해 구성되며 여성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공간의 세이프티 존과 자연감시를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일·생활통합과 열린 커뮤니티, 생활안전, 다양성을 통한 참여가 도시 여성의 삶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토론자인 변미리 서울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장은 행복, 공간, 젠더 이슈 등이 모두 학제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덧붙이며, 도시계획은 남성적인 전유물이었다고는 하지만 여성의 개별성이 각기 다른데 과연 통일성을 가지고 이해될 수 있는 대상인지 한 번쯤 의문을 가져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다.

기념식수

환경대학원 개원 40주년 기념행사의 의미를 더해주는 기념식수가 10월 25일(금) 오후 4시 45분에 있었다. 이 날 기념식수는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장)가 기증한 것으로 수종은 구상나무(*Abies koreana*)였다. 환경대학원 건물 오른쪽에 위치한 정원에서 식수행사가 진행되었고, 행사에는 윤순진 교수와 최막중 환경대학원장, 양병이 명예교수, 이완영 동창회장, 그밖에 환경대학원 교수와 재학생들이 참석하였다. 세워진 기념식수 위에 흙을 뿌리고 기증자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명패를 단 후에 기증자와 기념식수를 촬영하였다. 윤순진 교수는 “이 나무는 저보다 오래 살 것입니다. 제가 학교를 떠나게 되더라도 제가 심은 나무는 환경대학원 옆에 계속해서 자리잡고 있을 거라는 사실이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저에게는 나무와 함께 의미를 심어 더 뜻깊은 일이었습니다.”라며 기념식수 기증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40주년 기념식

환경대학원 개원 40주년 기념행사 마지막 날인 금요일 오후 5시부터 “40주년 기념식”이 환경대학원 306호에서 열렸다. 조경진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오연천 총장과 이완영 동창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지금까지 40년’이라는 주제로 40주년 기념 영상이 상영되었으며 양병이 명예교수가 환경대학원 역사기록 책자 설명을 하였다. 이어 손용훈 교수가 환경대학원 아카이브 구축계획에 대해 발표하였다. 앞으로 40년이라는 주제로 최막중 환경대학원장의 환경대학원 미래 40년 비전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이희연 교수가 e-뉴스레터 및 e-환경논총에 대해 설명하였다. 조경진 부원장은 하늘마당, 노을마루, 220동, 306호 리모델링 등 환경대학원 시설 현황 및 계획을 소개하였으며, 김경민 교수는 발전기금 기부 현황 및 기부자 우대 계획에 대해 발표하였다. 조경진 부원장의 폐회사로 40주년 기념식이 마무리되었다.

환경대학원 역사기록 책자는 “환경대학원 도전과 개혁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원로교수 대담과 환경대학원 회고 에세이 등이 수록되어 있다. 원로교수 대담으로는 노용희, 김창석 명예교수 대담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개원과 환경학의 태동에 대한 이야기’, 권태준 명예교수, 이덕복 박사 대담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도시학/환경학의 발전과정에 대한 회고’가 수록되어 있다. 이밖에 오희영 명예교수의 글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개원 배경’, 최상철 명예교수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전사: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임강원 명예교수의 ‘환경대학원 교통관리 전공교육 45년을 뒤돌아 보며’, 김정욱 명예교수, 신용승 박사 대담, 이정전 명예교수, 이동수 교수 대담의 ‘환경관리 20년사’와 유병림, 양병이 명예교수, 정수진 대담의 ‘조경전공 40년사’, 김기호 명예교수, 원세형 대담의 ‘환경대학원 도시설계 교육의 역사와 발전과정’이 수록되어 있다.



동문홈커밍 행사

환경대학원 개원 40주년 기념식이 끝난 뒤 환경대학원 405호에서 동문 홈커밍 행사가 6시부터 3시간여에 걸쳐 진행되었다.

동문홈커밍 행사 1부는 백승걸 한국도로공사 수석연구원이 사회를 맡았다. 최막중 환경대학원장과 이유민 학생회장이 환영사를 하였다. 도시 및 지역계획, 교통관리, 환경관리, 조경, 도시설계, SGS 등 각 전공 대표들이 전공별로 동문활동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주관 기수인 73, 83, 93년 입학기수 대표 3명이 회고 및 인사말을 하였다. 김현선 동문이 40주년 로고의 의미를 설명하였으며, 사회자가 기념품 소개 및 후원자인 SGS 조백일 부회장을 소개하며 1부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7시부터 진행된 2부 행사는 만찬 및 친교를 위한 시간으로 성동구청 도시관리국장인 최병진 동문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다. 환경계획학과와 환경조경학과 재학생들이 준비한 재치 넘치는 장기자랑과 '여민락'팀의 국악연주 축하공연으로 동문홈커밍 행사의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다. 이완영 동창회장님과 최막중 원장님의 기념 케이크 커팅식 후에는 기수별 소개와 경매, 퀴즈, 게임 등이 열렬한 호응 속에서 진행되어 동문들의 친교를 도모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대학원의 40주년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하며 기념사진 촬영을 끝으로 동문홈커밍 행사와 함께 40주년 기념행사도 막을 내렸다. 이날 동문홈커밍 행사는 재직 중인 교수님들은 물론 재학생과 명예교수님들, 동문들이 모두 모여 의를 다진 뜻 깊은 자리였다.



학교 소식

1

학술/연구/교류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

이홍수 건축가 초청 특별강연



지난 7월 5일 오전, 이홍수 싱가포르 도시개발청 총괄건축가의 'Marina Bay 개발계획을 통한 싱가포르 도시계획 엿보기'가 특강이 있었다. 상업, 문화유산, 주택, 산업, 자연환경 등 토지가 그 수요를 반영하며 여러 용도로 균형 있게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을 앞서 말하였다. 1971년부터 1991년, 2001년에 이르기까지 경제 성장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진행되었고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와 연계된 조직 및 체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City-in-a-Garden(정원 속 도시), Decentralization & New Growth Areas(분산 및 새로운 성장 지역), A Public Transport Oriented City(대중교통기반체제), Conserving Built Heritage(문화유산보존) 등의 전략에 대하여 싱가포르 도심 및 외곽을 대상으로 사례를 들었다. 또한 1984년 마리나 베이의 매립과정과 복합개발, 360° 3차원적으로 국제도시 이미지 수립을 위한 수변의 스카이라인 형성, 야간 조명 및 경관 조성 등 설계 요소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였다. 워터프론트를 산책할 수 있는 가로 체계와 활동을 반영한 마스터플랜, 국제 전시를 활용한 마케팅 등 현장감 있는 사진과 도면, 각종 법령과 조항 등을 활용하여 실무자로서 경험한 바를 이야기해 주었다. 다민족 도시국가에서 외국인으로서 생활하는 환경과 대우, 전반적 사회 시스템 등 다양한 체험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방학 중임에도 많은 학생들이 청강하며 질문하였고, 이에 열정적인 답변과 설명이 오고 간 현장이었다.

Mycle Schneider 초청 특별강연



지난 11월 15일, "Mycle Schneider 초청 특별강연"이 재학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대학원 205호에서 열렸다. Mycle Schneider는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s』의 최초 발간자이자 주요 저자이며, 2012년부터 대한민국 서울시(SMG)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에너지 및 원자력 정책 국제 컨설턴트이다.

『Nuclear Power, Climate Change and the Essence of Energy Policy』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특강에서 Mycle Schneider는 크게 두 가지 세션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 그는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s 2013』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였다. 원자력의 비용(고정, 자본, 운영, 마케팅 비용 포함)은 점점 상승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원자력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이러한 원자력 감소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중국 및 EU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풍력, 태양광 등의 재생가능에너지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에너지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설명하면서, 에너지 정책의 기본 목표가 모든 사람들에게 난방, 온수 등과 같은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EU를 비롯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이를 실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Mycle Schneider는 결국 에너지 정책 접근 방식을 수직적 접근에서 수평적 접근으로, 대규모 방식에서 소규모 방식으로, 공급위주에서 에너지 서비스 위주로 변경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Norman Laws 교수 초청 특별강연



지난 11월 27일 수요일 오후, 독일 Leuphana University의 "Norman Laws 교수 초청 특별강연"이 'How states deal with sustainability politics. The example of Germany. Findings and interpretation.'이란 제목으로 환경대학원 205호에서 열렸다. Norman Laws 교수는 정치경제학자로 현재 한국에 연구 교수로 방문 중이다.

독일 연방 정부의 『Guiding Principle Sustainable Development(2012)』출간 이후 Laws 교수는 지속가능한 정치라는 개념이 현실 행정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연구했다. Laws 교수는 각 정부 부처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각 부처의 업무가 지속가능성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 중요도를 분류했다고 설명하였다. 분석 결과 16개 부처 중 1개 처(Development Aid)만 중요하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환경부가 가장 크고 경제부가 가장 작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정부 내에 확산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고인룡 교수 초청 특별강연

지난 12월 6일 금요일 이석정 교수(환경계획학과)의 강의인 '도시계획과 설계'에서는 공주대 건축학부 고인룡 교수를 초청해 '커뮤니티 설계과정과 워크숍 방법 그리고 도구'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 특강에서는 건축물과 도시 공간의 사용자인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의견을 설계 단계에 반영하는 방법론과 과정 그리고 평가 방법 등을 남한산초등학교, 노량진초등학교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다루었다.

특강에서는 소수 전문가들의 생각만 설계에 반영되는 공간 디자인의 현실에서 이들의 생각이 공간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살펴본 뒤, 사용자들의 생각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반영되는지를 제시하였다. 워크숍과 디자인 게임 등의 도구를 통해 사용자들의 막연한 생각은 구체적인 공간의 요구로 나타났으며,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 시공자, 공공 등의 이해 관계자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설계자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이는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닌 사람과 공간 사이에서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설계자의 위치를 보여주었다.

특강을 통해 학생들은 도시계획 전공에서 자주 다루지지 않던 주제였던 사용자 중심의 생활공간을 계획, 설계하는 수법과 효과 등의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 또한 그동안 담론으로만 다루었던 주민, 커뮤니티 참여가 공간 설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실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생생한 강의를 통해 좋은 공간 설계에 대한 이해를 한층 강화하는 기회였다.



기후변화정책- 아마존 부족 의장 초청 특별강연

지난 9월 3일 기후변화정책 강의시간(담당교수: 윤순진)에 독특한 복장의 외국인 손님들이 찾아왔다. 에콰도르 세코야 부족의 의장인 에더 파야구아헤와 브라질 아크레주 후니쿠이 부족 의장인 니나와 후니쿠이다. 이들은 지난 8월 말 순천에서 열린 아마존 국제심포지엄을 시작으로 DMZ, 4대강 등 한국의 자연경관과 환경을 둘러보는 중이었다.

본 강연에서 이들은 무리한 발전소 건설, 자원 개발, 농업용지와 가축사육시설의 확장, 국제 석유기업들의 횡포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브라질 개발 프로젝트의 현실을 비판하고, 아마존 광산 개발을 추진 중에 브라질 정부가 지역 주민의 권리를 묵살하며 박탈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였다. 현재 아마존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법적으로 어떤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전까지 누려오던 권리까지 빼앗기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처참한 현실 속에서 아마존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두 의장의 어조는 다소 무거웠다. 이들은 아마존을 지키는 일에 연대와 지지를 요청하며 강연을 마쳤다.

이어 바네사 바르함 에콰도르 국제 환경 변호사는 '환경보호를 위한 아마존 세코야족의 활동, 석유개발로 인한 아마존 대지의 문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바네사는 미리 준비해 온 사진과 영상 자료를 통해 원유개발, 댐 건설 등으로 인하여 아마존에 갇혀 사는 원주민들의 문화는 물론, 생물종 다양성이 파괴되는 현장을 보여주었다. 특히 석유개발회사인 세브런이 지난 20년간 유독폐수와 기름을 유출하여 200만ha의 대지를 오염시키고, 발암과 기형아 출산 등을 유발하며 지역의 생태계와 문화까지 파괴한 사례들을 보여주었다.



교통관리 전공의 학술활동

제19회 교통연구세미나

지난 10월 4일 금요일 오후, "제19회 교통연구세미나"가 환경대학원 103호에서 개최되었다. 교통연구세미나는 교통관리전공 석·박사과정 재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수행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통관리전공이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가 후원하였다. 교통연구세미나는 2004년 이후 매년 2회씩 개최되어 왔으며, 지난 18회 동안 교통연구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은 총 187편에 달한다.

제19회 교통연구세미나는 본 대학원 김성수 교수의 개회사와 (주)유신 배성일 부사장(계획 14기, 교통동문회 회장)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교통관리전공 석·박사과정 재학생의 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국토연구원 임영태 박사(계획 22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백남철 박사(계획 24회), 한국교통연구원 한상진 박사(계획 29회), 환경계획연구소 조은경 박사(계획 32회)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발표논문에 대한 토론과 심사를 진행하였다.

최우수논문상은 스마트카드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역의 대중교통 통행발생량을 추정하고 도심의 실제 대중교통 통행패턴을 고려한 경전철 노선계획 방법론을 제시한 김겨중(석사과정)의 '스마트카드를 활용한 경전철 노선계획 방법론 연구'가 선정되었다. 우수논문상은 자전거도로에서 이용자에게 큰 영향을 주는 인자를 고려하여 용량산정 방법을 연구한 조황영(석사과정)의 '자전거도로 용량 산정방법 연구'가 선정되었다.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교통동문장학금이 수여되었으며, 국토연구원 임영태 박사의 폐회사로 제19회 교통연구세미나를 마무리하였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

교통관리전공에서는 매월 1회씩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은 교통·물류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강연을 개최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연구 분야에 대해서 토론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3년 2학기에는 총 2회(제28차, 제29차)의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으며 철도운영연구의 성과와 과제, 전국 여객 OD 구축 및 활용방안에 대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되었다.

제28차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

9월 6일 월요일, '철도운영연구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제28차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이 개최되었다. 철도기술연구원 녹색물류 시스템공학연구소 홍순홍 박사의 강연으로 진행된 콜로키움은 환경대학원 재학생 및 외부참석자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으며, 본 대학원 장수는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홍순홍 박사는 철도산업구조와 철도시장 전반에 대한 소개로 강연을 시작하였다. 국내 철도산업구조는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고, 운영을 주관하는 기관이 분리된 수평분리구조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선로사용계획·선로배분·선로사용료 산정·교통관제 업무를 주관하며, 철도운영자는 스케줄링·수익관리·차량 및 승무원운용의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까지 진행된 철도와 관련된 연구과제들을 소개하였는데, 주요 연구과제로는 철도시설과 관련하여 선로사용계획, 선로배분, 선로사용료 산정, 교통관제, 시뮬레이션 툴 등의 분야가 존재하며, 철도 운영과 관련하여 스케줄링, 선로배분신청, 운임체계, 수익관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최근 철도 운영계획이나 안전 분야 등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해당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 하였다.



먼저 철도시설과 관련하여 선로배분에 관한 연구가 예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철도공사가 단독사용자로 배분의 필요가 없었으나 선로사용료가 시장원리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노선특성-상품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선로사용료 방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철도 운영과 관련하여, 자율분산관제시스템의 등장으로 분산제어체계가 가능하며 역운영제어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되었으며, 지속적인 성장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철도 운영에 대한 규제완화, 민영화, 타수단과의 경쟁심화,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등으로 철도업계는 이에 대응하는 시스템과 운영방안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철도와 관련하여 시설측면, 운영측면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와 관련된 성과를 간략히 설명한 후, 선로용량의 절대적 부족 문제, 복수운영자 도입에 대한 선로배분, 선로사용료 배분문제, 신뢰성 높은 유지관리 수준 등의 향후 연구 과제를 제안하며 강연을 마무리 하였다.

제29차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엄

지난 11월 4일 월요일, '2011년 전국 여객 OD 구축 및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제29차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엄"이 개최되었다.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 조종석 박사의 강연으로 진행된 콜로키엄은 환경대학원 재학생 및 외부참석자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으며, 본 대학원 장수는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조종석 박사는 2011년 기준으로 새롭게 구축된 전국 여객 OD 구축사업에 대한 소개로 발표를 시작하였다. 발표는 기 구축된 여객 O/D의 문제점 진단, 새로운 여객 O/D 구축 방법론 소개, 여객 O/D 활용방법, 향후 개선방안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조 박사는 기 구축된 여객 O/D가 여객 권역별로 상이한 전수화 방법론 적용, 사회경제지표 추정 방법의 불일치, 사회여건 변화의 미반영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음을 밝혔다. 때문에 금번 O/D 구축사업에서는 추정 방법론 및 지표의 일원화 과정과 통일된 신뢰도 검증기준을 수립하여 기존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수반되었음을 강조하였다. O/D 전수화 시에도 기존 사업에서 수행되지 않았던 대규모 유발시설 및 외국인 통행에 대한 보정과 PA기반의 도착지 보정 등을 통해 모형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며, O/D 신뢰성 향상을 위해 광범위한 조사 및 실적자료가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전국 여객 O/D 활용 방법으로는 주수단 O/D를 이용한 도로부분 수요분석방안과 철도부분 수요분석방안을 소개하였다. 도로부분에서는 기존자료가 별도의 접근수단 O/D가 정의하지 않아 통행배정 단계에서 과소하게 배정되었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이 구축된 접근수단 O/D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철도부분의 경우 Centroid 커넥터 및 파라미터 보정을 통해 모형의 설명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론을 실제 분석사례에 적용한 결과 도로부분의 경우 전반적인 모형 오차율이 감소하였으며, 철도부분의 경우 비현실적인 통행배정 행태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의 마지막 순서로 전국 여객 O/D의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종석 박사는 신뢰성 있는 O/D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사 자료의 품질 개선, 모형 기반의 O/D 제공, Big Data의 수요분석 활용 증대, 한국형 대중교통수요분석체계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를 포함한 여객 교통수요 수요분석체계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밝히며 발표를 끝마쳤다.

환경관리 전공의 학술활동

서울환경포럼 2013년 제2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

지난 7월 13일 토요일 환경대학원에서 서울환경포럼(회장 전의찬, 세종대 대학원장)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서울환경포럼은 환경관리전공 동문이 주축이 되어 그 당시 환경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를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해왔다. 이번 행사는 2013년 “제2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로 서울환경포럼 회원들, 교수, 재학생 등 4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최근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기업들의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와 관련하여, ‘환경사고와 유해화학물질 관리’라는 주제로 실시되었다.

서울환경포럼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의 축사와 성종상 교수(조경학과)의 ‘환경대학원 40주년, 비전과 과제’라는 제목의 특강이 이어졌다. 학술세미나 1부에서는 이동수 교수(환경계획학과)를 좌장으로 하여, 송형근 청장(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박인 이사(LG화학), 김동영 연구위원(경기개발연구원)이 정부, 기업, 지자체를 대표하여 각 단체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표로 이루어졌다. 2부에서는 신용승 박사(KEI), 최진희 교수(서울시립대) 등 4인의 지정토론과, 참석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는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유해화학물질관리의 현 상태를 분명히 확인하고, 정부, 지자체, 기업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의 한계와 해결방안들을 공유함으로써, 앞으로의 환경사고를 방지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후속조치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심도 깊게 이루어진 뜻깊은 자리였다.



석·박사과정 학생의 국제학술 활동

환경대학원 석·박사 과정 학생들의 국제학술지와 국제학술대회를 통한 논문발표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제 학술활동에 대한 학교의 일부 비용 지원에 힘입은 결과이며, 학생들의 전공분야에 대한 문제인식 및 연구논의가 점차 국제적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해주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논문이 세계 학계의 지식 축적 과정에 보다 빈번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환경관리전공 김고운(박사과정), 이도원 교수(환경계획학과)는 지난 11월 일본 미야자키에서 열린 “제6회 전통산림지식 컨퍼런스”에서 ‘Social-ecological lessons from natural resource related Korean proverbs’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자원과 관련된 속담의 분류와 빈도 분석을 통해 한국 속담에 나타난 한국 전통사회의 사회-생태계의 특성에 대해 발표하여 속담과 같은 민속자료가 전통생태 연구의 자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환경관리전공 **김은지**(석사과정),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3년 11월 중국 난징에서 열린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Environmental Sociology in East Asia"에 참가하여 'Developing Pro-Environmental Behavior (PEB) Indicators based on Consumption Literacy'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소비 규모를 친환경 행동 측정 지표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친환경 정도를 판단하는데 있어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소비규모를 반영한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였다.

환경관리전공 **황보명**(석사과정), **윤순진 교수** 역시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Environmental Sociology in East Asia"에 참가하여 'An Analysis on Conflict Strata around Thermal Effluents of Youngkwang Nuclear Power Plants'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영광원전의 입지와 온배수 배출이라는 외부적 환경 변화로 인해 지역 사회에서 발생해온 갈등을 갈등분석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환경관리전공 **김희석**(박사수료), **이윤아**, **장리아**(석사과정), **정자은**(박사수료), **송지혜**(박사수료), **이동수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3년 11월 미국 Nashville에서 열린 "SETAC North America 34th Annual Meeting"에서 'Evaluation of SimpleBox for exposure assessment at screening level in Korea'라는 제목으로 포스터 발표를 하였다.

환경관리전공 **유규연**(석사과정), **정윤아**(석사졸업), **박지형**, **오능환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3년 12월 미국 San Francisco에서 열린 "AGU Fall 2013 Meeting"에서 'Comparison of in-situ optical sensors in monitoring stream DOC concentrations'라는 제목으로 포스터 발표를 하였다.

교통관리전공 **석사과정 학생들**은 2013년 9월 대만에서 열린 "The 10th EASTS conference 2013"에서 아래와 같이 포스터 발표를 하였다.

- "Characteristics of Driving Behavior According to Accumulative Task Loading Time of Intra-city Bus Drive (김다혜)"
- "Comparative Analysis of Traffic Accident Written Investigation from Korea, Germany, and Spain (최예찬)"
- "Dynamic Forecasting of Bus Path travel time : Simplified Stochastic Approach (안수연)"
- "Calculation Method for sliding-window length a traffic accident frequency case study (이상조)"
-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driving duration on abnormal driving behaviors of corporate taxi driver (이진걸)"
- "Comparison of the Empirical Bayes Method and Before-After Study Method (박남준)"

협동과정조경학 **정승규**(박사수료)과 **박종화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4년 8월 영국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Ecology: Intecol"에서 'Selecting suitable riparian wildlife passage locations through evaluating habitat suitability and wildlife crossing of mammal'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발표내용은 GIS와 서식지 적합성 평가를 이용하여 야생동물의 서식지 이동에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서식지 보전 및 관리를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환경조경학과 **허윤서**(석사과정)와 **손용훈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3년 8월 30일에서 9월 1일까지 3일에 걸쳐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국제학술회의 "Spatial Plann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Major Challenges of eco-bridges in Seoul through the using state survey - targeted at four eco-bridges in Dongjak-Gu and Gwanak-Gu'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서울시 동작구와 관악구의 서달로, 사당로, 솔밭로, 남부순환로 총 4개의 생태이동통로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비오톱 평가도, 토지이용도, 비오톱 유형분석도, 식생분포도를 나타내는 GIS를 활용한 입지적합도 분석이며, 현장조사 및 이용객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하여 현재 이용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현실적으로 녹지와 식생이 부실하여 야생동물이 서식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도심지의 생태이동통로는 생태계가 우선되는 비도시 지역의 생태이동통로와 비교할 때 그 의미와 기능이 같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도시민들의 이용을 전제로 하는 도심지 생태이동통로의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환경조경학과 **이재혁**(박사과정)과 **손용훈 교수**(환경조경학과)는 동일한 국제학술회에서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Planned Eco-tourism : Q methodology and AHP Analysis for Stakeholders' Response, Focusing on Maha Eco-tourism sites in Pyeongchang-gun where 2018 Olympic & Paralympic Winter Games will be Held'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주요 생태관광 조성방식인 정부주도형 생태관광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이하여 물적 자원 및 재원 투자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창 마하생태관광단지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평창 생태관광단지의 이해당사자들이 원하는 생태관광조성방법을 확인하고자 Q방법론과 AHP방법론을 통해 인식과 선호도 조사를 통해 앞으로 정부주도형 생태관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환경조경학과 **민경찬**(석사과정)과 **손용훈** 교수(환경조경학과)는 동일한 국제학술대회에서 'Classification of Urban Agricultural Lands in Gwanak-gu and Its Application'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본 논문은 서울시 관악구에 존재하는 다양한 성격의 도시 경작지의 현황을 조사하여 현재 실태와 문제점, 대안을 도출해 보는 연구로서 현장조사와 인터뷰조사를 통해 주요 특성과 이용자 의식 등을 파악하였다. 관악구는 자생적으로 발생한 총 45개소의 도시경작지가 있으며 주로 공원구역에 해당하는 산지하부 경사면에 위치함을 알 수 있었다. 각 경작지의 관리 상태와 크기, 공공성 여부, 지역의 사회적인 배경을 면밀히 조사한 후 6가지 유형의 경작지로 분류하여 앞으로 도심 내의 경작지 도입의 가능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석박사과정 학생 수상내용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3 추계학술대회

도시및지역계획전공 **박유진**(석사과정)과 **이희연**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3년 10월 26일 고려대학교에서 치러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3 추계학술대회"에서 '직종 특성별 과잉학력에 따른 임금효과 격차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여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이들은 논문에서 최근 30년 간 급속히 진행된 대졸인구 증가와 고학력화에 따른 과잉학력 문제가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임금하락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직종 특성에 따라 긍정적 임금상승을 나타낼 수 있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음을 임금함수와 구분적 선형회귀 모델을 통해 분석, 입증하였다. 나아가 직종 별 과잉학력자의 공간분포가 불균등함을 고려할 때 과잉학력의 긍정적 파급효과는 일정한 지역에 편중될 것임을 보여주었다.

도시및지역계획전공 **석주영**(석사과정)과 **이희연** 교수(환경계획학과)는 '도시권의 교통에너지 소비에 따른 탄소배출량 비교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여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이 논문은 통행흐름 패턴을 기초로 하여 도시권을 설정하고 도시권별 교통에너지 소비에 따른 탄소배출량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특히 도시권을 교통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토대로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 교통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효과적인 탄소저감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시및지역계획전공 **김대진**(석사과정)과 **최막중** 교수(환경계획학과) 역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거주주택 유동화 방안 선택조건 비교'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본 논문은 거주주택의 유동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분석하여 은퇴자가 선호할 유동화방안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수명이 점차 연장됨에 따라 개인의 기대여명이 증가하고, 주택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으며, 이자율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환경에서는 은퇴계층의 노후소득보장 방안으로서 주택연금의 선호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2013 한국주택학회 정기학술대회

도시및지역계획전공 **전혜영**(석사과정)과 **최막중** 교수(환경계획학과)는 12월 6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린 "2013 한국주택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주택의 점유형태 및 규모에 따른 근린의식 형성의 비교'라는 제목으로 분과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동일 단지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근린의식을 형성하는 범위와 정도의 차이를 주택유형별로 관찰함으로써 주택의 점유형태와 규모에 따라 근린의식 형성에 차이가 존재하고, 각 주택유형 간의 근린의식이 상호 비대칭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는 거주지에서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향후 사회적 혼합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SNU in Global Research 프로그램

도시및지역계획 전공 **한구영**(박사과정), **박호근**, **이상욱**, **이석준** (석사과정), **홍보영**(석사과정)은 지난 6월 서울대 국제협력본부 주관 SNU in Global Research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현지에서 이주노동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개발도상국 출신 저숙련 노동자의 주거실태와 문화 향유공간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이 연구는 SNU in Global Research 프로그램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2013년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국비유학생 선발

도시및지역계획 전공 **박호근**(석사과정) 학생은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2013년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에 합격하였다. 지난 1977년부터 시행된 해당 제도는 해외 석/박사 유학생을 선발하는데, 올해 총 42명을 선발하였고, 박호근 학생은 일반전형 기초학문분야(사회과학)에 선발되었다.

한국관광장학재단 주최 제4회 우수논문공모전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한국관광장학재단이 주최한 "제4회 우수논문공모전"에서 도시및지역계획 전공 **기명성**(석사과정) 외 3인은 '외국인 개별여행관광객(FIT)을 위한 숙박시설 확충방안' 논문을 통해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들은 최근 만성적인 공급부족에 시달리는 서울시 숙박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많은 비즈니스호텔을 건립중이지만, 이보다는 도시민박, 게스트하우스처럼 대체숙박시설이 더 시급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한편 대체숙박시설은 구조적으로 영세하기 때문에 같이 모여 있을 때,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경제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특정구역을 대체숙박시설클러스터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

'열린 정원 (Ideas of the Garden in Our Times)'을 주제로 개최된 "제10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에서 환경조경학과 **이슬**(석사과정)과 **이선미**(석사졸업)가 한 팀을 이루어 'Water Made Infrastructure'로 설계부문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은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조경사회, (재)늘푸른이 주최하며 국토교통부 등이 후원하는 공모전이다. 이번 공모 주제인 '열린 정원'은 정원이 사적인 공간을 넘어 사회적, 시대적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현재의 동향을 반영하며, 이에 따른 동시대 조경가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슬과 이선미는 이번 공모전에서 개별적이고 폐쇄적인 사유공간이라 인식되어 온 정원이 도시의 기반이 될 수 있으며, 단지계획의 시작점에서 적용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재개발 예정지인 강남구 구룡마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현장답사 및 현황분석을 통해 마을을 둘러싼 산으로부터 흘러오는 지하수, 해마다 발생하는 홍수 피해 등이 대상지의 중요한 이슈임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수 관리가 가능한 네트워크화 된 녹지로서의 정원을 제시하였다. 재조직화 된 물길과 이를 중심으로 하는 정원은 구룡마을의 단지 전체를 관통하며, 이를 기반으로 단지의 다른 요소들의 위치 및 규모 등을 결정하였다. 또한 정원의 규모와 환경에 따라 거주민의 다양한 활동도 수용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적인 인프라스트럭처로 시작된 정원이 삶의 장소로 환원될 수 있음을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사)한국경관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우수논문상

지난 11월 8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사)한국경관학회 2013년 추계 학술발표대회"에서 **김정화**(협동과정 조경학 박사과정) · **손용훈** 교수(환경조경학과)가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현대시를 통해 본 세종로 경관 인식의 특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이들의 연구는 세종로에 대한 경관 인식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세종로를 주제로 한 현대시 28작품을 분석하여 시인이 지각하는 경관 요소와 경관요소를 구성하는 방식 및 태도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광화문이 세종로를 지칭하는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으며 일상의 사물이나 시대적 사건과 같이 경관 계획가가 다룰 수 없는 일시적 요소들이 주로 인식되고 있고,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 세종로는 다층적으로 혼재된 경관 특성을 지닌다고 밝혔다. 또한 경관을 창조하는 계획가는 경험을 바탕으로 경관을 재구성하며, 마음으로 경관을 보고,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경관의 영역을 확장해나가는 시인의 경관 태도를 본받아 경관을 논하는 다양한 분야와 소통하면서 경관 인식의 깊이를 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서울 도시디자인 2013 국제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제9회 SSS(International Space Syntax Symposium)를 맞이하여 서울시와 SSS가 후원한 "Seoul Urban Design 2013 국제공모전"에서 환경조경학과 **이희원**, **홍수란**(석사과정), **김나영**(도시설계협동과정)이 Honorable mention을 수상하였다. 이번 국제공모전은 신월IC에서 여의도를 잇는 제물포길에 위치한 제물포터널 건설 사업에 의해 축소되는 기존 지상도로의 부지를 대상으로 'Toward Urban Integration (도시의

통합을 향하여)라는 주제 하에 진행되었다. 공모의 목적은 도시재생을 위한 아이디어와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연결체계 구축,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들은 'Uptown Boulevard'라는 제목으로 제물포길의 쇠퇴로 인해 없어질 상업시설들의 공간을 대상으로 끌어와 이 공간에 상업, 주거, 편의시설과 오픈스페이스를 MXD형태로 넣었다. 이들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연결하기 위하여 'open chamber'라는 디자인 컨셉으로 각 공간들을 필로티나 다리를 이용하여 이어서 이용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주거나 상업, 편의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용자들을 1층뿐만 아니라 위층으로 끌어들이면서 새로운 uptown이 형성되며 위쪽에 위치한 공간의 특성상 대상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조망권을 갖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상업시설이 새롭게 조성되는 공간을 통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며 기존의 낙후된 사회기반시설을 개선시켜 주민들 간의 소통과 방문객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공간이 될 것이다.

조경진흥 아이디어 공모전

(사)한국조경학회가 변화하는 시대환경 속 조경의 대응을 화두로 개최한 "조경진흥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김용국**(협동과정조경학 박사수료)이 '도시공원 개발특례제도 적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200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소 및 생활권 내 질 높은 여가 공간 확충을 위해 제도가 수립된 이후 적용된 사례가 미비한 원인을 관계자 인터뷰 및 문헌조사를 통해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음의 다섯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민간공원 조성이 가능한 전국 미집행 도시공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둘째 민간조성공원 가치평가 툴킷(Tool-kit) 개발, 셋째 제도적용 대상범위 확장과 비공원시설 설치기준의 탄력적 적용, 넷째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 다섯째 개발특례사업 시행절차 내 시민참여를 위한 기구 설치 등이다. 개발특례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개선을 통한 국민복지 실현은 물론 조경산업 활성화 및 관련 연구 프로젝트 개발, 그리고 부동산·건설·금융 등 민간분야의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조경디자인공모전 입선

삼성에버랜드 창립 50주년기념 "국제 조경 디자인 공모전"에서는 '도시공간의 재해석(Reinterpreting Urban Space : Discovering the Possibilities)'을 주제로 새로운 도심형 휴게공간과 도시 공간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계기를 갖고자 하였다. 조경학과 **박준성**, **박상현**(석사과정)의 'Variety in loops'는 서울시내 도로간의 교차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나들목(IC, JC) 내 유휴공간을 대상지로서 도시 내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시설로 인해 의도치 않은 공간의 배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나들목과 유휴지를 연결하는 platform 을 제안함으로써 유휴지(遊休地)를 무휴지(無休地)로 전환하고 도시논리로부터 외면 받는 프로그램들(예를 들면 대피소, 구호시설, 자연발전소, 농업, 비오톱 등)간의 조합을 통해 공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서울시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서울시에서 주최한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에서 환경조경학과 **이연선**, **김석원**, **박준성**, **이진우**, **박상현**(석사과정) 학생이 참여한 '13collaboration'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72시간 도시 생생 프로젝트'의 미션은 '자투리 공간에 생각을 담아라'로 도시의 자투리땅이 얼마나 유용하고 개성 있는 공간으로 바뀔 수 있고,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13collaboration 팀은 13명의 전문가, 학생 및 시민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상도마살'은 72시간동안 땅을 설계하고 시공하면서 지역주민에게 잊힌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상도동에 위치한 대상지는 작은 공간에 노후한 시설이 방치되어 있었고 낮에도 빛이 잘 들지 않는 죽어있는 공간이었다. 인근 주민들에게 음주와 흡연이 주로 이루어지는 불량한 공간이라는 인식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수다공간이자 동네주민 누구나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상도마살'을 기획하였다. 단차를 두어 활용도를 높이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시공이 되도록 하였으며 재활용품이나 생활폐기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소주병을 거꾸로 땅에 꽂아 바닥에 포인트를 주었고, 화분으로 재활용된 통조림캔, 건설현장에서 쓰다 남은 철재들이 '상도마살'의 소재가 되어 대상지 곳곳에 녹아들어갔다. 공사하는 기간 동안 인근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으며 자투리공간이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는 하나의 해법을 제시한 프로젝트였다.

2

환경계획연구소 활동

환경계획연구소 수요 집담회

보행 중심의 마을만들기

7월 3일(수) 환경계획연구소 주최의 수요 집담회에서 박동욱(계획 석사 37회) 박사의 '보행 중심의 마을 만들기: 서울, 교토, 북경, 피렌체의 중심시가지 사례비교' 강의가 있었다. '보행'을 중심으로 서울, 교토, 북경, 피렌체 이상 네 도시의 가로 경관 촬영하여 그 차이점을 보여주었다. '보행'의 정의 역시 걷기, 거닐기, 산보, 산책, 마보, 소모, 배회, 방랑, 유람 등 다양한 행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그 중 산보가 본 연구와 가장 근접함을 밝혔다.

이어서, 일본의 마을 만들기 개념을 설명하며 자동차가 도시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첫째는 교통 내부의 악순환으로 대중교통 이용자를 감소시키고 편리성을 저하시키는 반면, 자동차 의존도를 높인다 하였다. 두 번째는 도시 구조의 악순환으로, 저밀도의 확산적인 도시 구조는 대중교통 성립 자체를 곤란하게 만든다 하였고, 마지막으로 도시 활동의 악순환은 도심지 내 주차장화로 이는 도시의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교외 활동을 증가시켜 역으로 도심 공동화를 일으킨다 하였다.



박 박사는 교토 시조, 기온과 서울 명동, 인사동, 북경 왕푸징, 난루 공시앙, 피렌체 첸트로, 산타크로체 등 각 나라 별 두 곳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활기 정도와 거리의 환경요인, 보행자 전용도로, 상점의 유형(은행, 광고서와 같은 필수적이고 목적지향의 것과 아케이드, 피자, 노점상 등 거리 중심형으로 분류하였다), 주차 등이 조사 방법에 포함되었다. 그의 발표에서 4개 중심시가지 회귀분석의 공통된 결과는 보행자 밀도가 높아지면 간접적으로 주차 밀도가 낮아진다는 점이고, 이로써 보행 친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이었다. 자전거는 자동차에 비하여 친화적 수단으로 볼 수 있으나 동시에 보행에 위협적인 존재일 수 있다는 이견이 있어 제외하였다 말하였다.

연구 대상지인 서울, 교토, 북경, 피렌체의 중심 시가지는 구도심으로서 과거 또는 현재 각 나라의 수도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하지만 인구밀도, 역사, 규제 정책 등 다른 환경 요소들로 보행 친화 정도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 내리거나 사례 연구를 바로 한국에 적용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하여 규모의 적절성을 파악하였고, 고령화 시대에 보행과 대중교통의 연계가 가지는 중요성 그리고 이를 위하여 시민 사회 공동의 의식과 참여가 필요함을 논하였다.

바깥에서 본 서울 도심 골목

로버트 파우저(Robert J. Fouser) 교수가 '바깥에서 본 서울 도심 골목'이라는 주제로 지난 9월 11일 수요일 2시간어에 걸쳐서 환경계획연구소가 주최한 수요 집담회에서 강연하였다. 로버트 파우저 교수는 서울대학교 사범대 국어교육과에 첫 외국인 출신 교수를 맡고 있다. 이번 수요 집담회에서는 유창한 한국어로 외국인의 눈으로 본 서울 골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서촌과 골목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품고 있는 로버트 파우저 교수는 골목을 역사적, 물리적, 정신적 공간으로 보았다. 골목은 자동차가 생기고 난 이후 더는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역사적 공간이며 골목이 많은 곳은 문명사에 중심 역할을 한 오래된 도시인 곳이 많다. 또한 물리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조금씩 변하며, 건축물과 기후, 사람과 상호 관계를 맺는다. 정신적 공간으로서의 골목은 추억과 기억이 있으며 낭만과 신비가 있다. 사람에게 여러 상징적 의미가 있는 공간이고 대표적으로 교토의 골목이 여기에 해당한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서울, 평양, 개성, 전주, 대구 등 조선 시대에 성장한 도시들에 골목이 많고 부산, 인천, 원산, 목포, 군산 등 개화기에 급성장한 도시들은 바둑판 모양이다.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서울 골목은 19세기까지 '흐름'의 중심으로서 가치가 높았으나 20세기 말부터 도로 중심인 도시 계획 확립 및 자동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그 가치가 도로로 이전되었고 골목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졌다. 그 이전까지는 '흐름'을 통해서 공동체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정신적 공간으로서의 서울 골목은 '미개발'의 상징이며 '주류'에 속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서울의 골목은 낭만적, 이국적 공간이 되면서 옛날에 대한 그리움의 상징이 되었다.



유창한 한국어로 워트 넘치는 즐거운 강연을 이끈 로버트 파우저 교수는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여러 질문을 받아주었으며 로버트 파우저 교수의 본 수요 집담회 내용은 2013년 9월 12일 매일경제에 실리기도 하였다.

장소기억으로 본 근대 장항의 산업경관

박재민(협동과정 조경학 18회) 박사는 지난 10월 30일 수요일 환경계획연구소 주최 수요 집담회에서 '장소기억으로 본 근대 장항의 산업경관'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문화경관 연구의 새로운 도구이며 개념인 장소기억을 소개하고 이를 사용하여 장항 근대 산업경관 해석하였다. 이를 위해 집단기억, 메타포, 구조주의를 토대로 장소기억을 재개념화 하였다. 장소기억은 장소를 중심으로 남아있는 기억을 말하며, 장소의 아우라, 이에 대한 주체의 기억, 그리고 기억이 재현된 기념물로 구분된다. 여기서 장소기억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상호 순환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며 함께 작동한다. 본 강연에서는 이중 주체의 기억, 즉 내부자인 지역주민의 기억 속에 내재된 장소기억을 사용하여 경관을 해석하였다.

장소기억으로 장항 근대 산업경관을 바라본 결과, 산업도시에 대한 경관 이미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제련소 굴뚝'으로 상징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층위로 두텁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오랜 시간 축적되어 형성된 지층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다양한 기억의 층위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데 그 주요 원인은 권력 구조와 사회적 구조에 따라 변화하였다. 각 이미지들은 다양한 기억의 장소들에 의해서 구성되고 설명되지만 각 장소는 시간의 변화 속에서 동일한 의미와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제련소 굴뚝은 과거 번영의 상징이었지만 80년대 이후 상실의 상징으로 2000년대 이후에는 환경오염의 상징으로 변화하였다. 더불어 기억 속에 내재된 경관 이미지를 시각화하기 위하여 의미연결망 분석을 사용하여 지도화 하였다. 이를 통해 시기별 변화하는 기억의 장소들의 변화와 의미키를 이해할 수 있었다. 2시간이 훌쩍 넘는 발표와 질의이후에는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주의해야하는 사항들에 대한 후배들의 질문에 선배로서의 노하우를 전수해주기도 하였다.

그린벨트의 오늘과 내일



2014년 12월 4일 환경계획연구소 수요집담회에서 권용우(성신여대 명예교수)의 '그린벨트의 오늘과 내일' 발표가 있었다.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출신으로 39년 동안의 교직 생활을 통해 훈장을 수여 받았고, (사)국토지리학회 전 회장이자 경실련 도시계획센터를 창립한 멤버 중 한 명이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연구』의 저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의 그린벨트가 도입된 배경(1971년 박정희 정권 이래), 정치사에 따라 정책과 입장이 달라진 상황, 수도권을 포함하여 김해 가덕도, 을숙도 에코타운 건설안 등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에 관한 설명도 곁들였다. 부동산실명제와 토지의 사유권 및 재산권 등 원거주민과 투기 사이의 민감성, 보전론·해제론·조정론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영국 아베크롬비의 계획안,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선진사례와 미국 하워드의 이론 등을 비교하였다. 한국의 그린벨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보전벨트, 친환경성을 유지하는 환경벨트, 공공적 시민정신과 공유하는 소통벨트, 형평성을 담보하는 균형벨트)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5.4%였던 그린벨트 면적이 3.7%로 줄고,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281호 제 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환경평가 결과 1, 2등급지를 활용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해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였다.

환경계획연구소 "Field Walk" 프로그램

환경계획연구소에서는 교수와 학생들의 현장답사를 지원하는 "Field Walk"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이번 학기에는 '201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와 '서울 중구 제조업 골목', '서울 문래 예술 창작촌' 등 세 곳의 답사가 있었다. 환경대학원 석사 및 박사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Field Walk" 프로그램은 한 학기 동안 재학생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201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환경계획연구소의 첫 번째 Field Walk가 지난 7월 1일 '201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서 열렸다. 전상인 환경계획연구소장을 비롯한 8명의 교수(최막중, 박종화, 윤순진, 조경진, 성종상, 이희연, 김세훈 교수)와 조교(박유미, 오관교 조교) 및 대학원생 외 15명 등 총 25명의 인원이 참가하여 약 4시간의 코스로 현장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박람회장을 견학하였다.

201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은 도심과 순천만 사이에 조성되어 팽창하는 도심에서 순천만을 보호하는 에코 벨트(eco-belt)의 역할을 하고 있다. 순천만은 지구상에서 가장 온전하게 보존된 세계 5대 연안 습지 중 하나로 갯벌 22.6㎢와 갈대 군락지 5.4㎢, 그곳에서 살아가는 120여종의 식물들이 사는 하늘이 내린 정원이다. 해마다 235종이나 되는 철새들이 찾아와 지친 날개를 쉬고, 지난 2006년에는 람사르 협약에 등록되어 국제적으로 보호받으며 명승 41호로 지정되어 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2013년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6개월간 전라남도 순천시 품덕동·오천동 일원과 순천만에서 개최되었으며, 박람회 주제는 '지구의 정원, 순천만'이었다. 정원 테마는 세계정원, 테마정원, 참여정원, 수목원, 순천만 등이 있었으며, 전시·체험관으로는 국제습지센터, 한방체험관, 실내정원, 에코지오오실, 어린이놀이정원 등이 있었다. 세계 정원에서는 한국, 프랑스, 중국, 네덜란드, 미국, 독일 등 11개국의 전통 정원문화를 만나볼 수 있었으며, 참여 정원은 국내외 도시, 기업, 작가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주제로 실내·외에 조성한 정원이었다. 테마 정원은 순천호수정원, 야수의 장미정원, 갯지렁이 다니는 길 등 정원박람회 개최 의미를 담아 조성한 11개의 정원으로 구성되었다.



환경대학원에서도 독일 라인마인대(German Rhine Mine University)와 함께 작업한 정원 두 작품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 전시되고 있어서 이번 Field Walk가 더욱 의미 있었다. 그중 하나인 크나이프 테라피 정원(Kneipp-Therapy Garden)은 독일의 물을 사용한 독특한 자연치료요법인 'Kneipp-Bath' 경험을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독일인들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하고 지친 다리를 쉬어갈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Field Walk팀도 크나이프 테라피 정원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다. 소망정원(Wish Garden)은 과거 마을의 당수나무에 기도를 드리며 꿈이 이루어지길 소망했던 것을 모티브로 하였다. 양 학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Wish Tree에는 세계와 인류가 공유하는 소망들을, Wish Box에는 사랑(빨강), 우정(노랑), 건강(하얀), 부(파랑), 자아실현(녹색)들의 개인적 소망들로 구분되는 개인적 소망을 적은 리본을 설치한 참여정원이다. 박람회 기간 중 Wish Box는 레일을 따라 Wish Tree를 향해 이동하여 박람회 종료 시점에는 하나의 구조물로 합체됐다고 한다.

Field Walk 안내를 했던 성종상 교수(환경조경학과)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원 박람회를 하는 게 꿈이었다고 밝히며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다른 국제정원 박람회와 다른 점은 그린 인프라의 의의로서 생태 보존을 위한 에코 벨트였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정원이 갖는 힘에 대해 역설하면서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 정원을 즐겼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서울 중구 제조업 골목

환경계획연구소의 두 번째 Field Walk인 '서울 중구 제조업 골목 답사'가 지난 8월 26일 진행되었다. 심한별(도시설계협동과정 박사)의 인솔 하 진행된 본 답사에는 환경계획연구소 전상인 소장, 손용훈 부소장을 비롯해 17명의 학생이 참석하였다.



답사는 서울 중구청 지하합동상황실에서 답사대상지에 대한 심한별의 설명을 시작으로 3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었다. 약 30분간 답사지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는 인현동 1가, 2가의 인쇄업 작업장을 답사하였다. 1945년 해방 이전까지 중구 지역에는 20여개의 민간 인쇄소가 성업했고, 6.25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50여 개의 민간 인쇄소가 등장하였다. 전쟁 중에는 폐업하거나 부산 등 지방으로 이전했다가 수도가 수복되면서 서울에 다시 인쇄소가 가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2009년 기준 전국의 인쇄업체 수는 17,800개사에 이르는데

이들 업체의 절반이 넘는 9,000개 사가 서울 등 수도권에 있으며, 이 중 50%인 4,500여 개 사가 중구 지역에 밀집해 있다고 하였다. 국내 연간 인쇄매출액 10조 원 중 4조5,000억 원 가량이 이곳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에서 이 지역을 인쇄 진흥지구로 지정하여 대대적인 재개발과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다음으로는 입정동, 산림동의 기계·공구 제조 작업장과 세운상가 중정(中庭)을 둘러보았다. 세운상가 중정(中庭)은 영화 '초능력자'의 촬영장소로도 유명하다. 세운상가는 우리나라 전자산업을 이끌던 곳으로 종묘 앞에서 퇴계로에 이르는 상가건물이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가인 김수근이 설계한 건물로서 처음 지어졌을 당시 새로운 주거시스템, 연예인이 살던 초호화 주택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당시 한국 최고의 주거지와 상권으로 자리매김하며 가전제품 상가로 호황을 누리다가 70년대 후반 강남 개발로 상황은 바뀌었다. 백화점과 명문 고등학교가 강남으로 이전되고 1987년 용산 전자상가가 새로 들어서면서 주도권을 빼앗기게 된 것이다. 지금은 그 기능이 많이 퇴색되었고 낡고 슬럼화된 건물이 되었다. 2008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꿈의 프로젝트로 '세운 녹지축 조성사업'이 계획되었다. 종묘와 남산 사이에 위치한 상가를 헐고 일대에 녹지를 형성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2012년 2월 시장이 새로 바뀌고 나자 종묘와 남산을 녹지로 연결하는 '세운 초록띠 공원'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 된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답사의 끝은 제조업 골목에 위치한 옛날집에서 식사를 하며 답사에서 느낀 점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마무리 하였다.

서울 문래 예술 창작촌

2014년 11월 22일, 환경계획연구소의 세 번째 Field Walk '서울 문래 예술촌 답사'에 전상인 교수(환경계획연구소장), 손용훈 교수(환경계획연구소 부소장) 및 문화관광연구원 전문원, 학생 등 23명이 함께 하였다. 지하철 2호선 문래역 7번 출구로 나와 약 200m 직진하여 당산로2길과 도림로 447길이 만나는 교차로에서 이용희 정다방 프로젝트 공동운영자의 안내로 이어졌다. 일제강점기 '물래'로 불리던 방직기계 공장이 들어서며 조성되었는데, 철공소와 철제상이 즐비한 골목에 들어서니 곳곳에 벽화와 창작촌 내 활동을 알리는 포스터들을 볼 수 있었다. 여타의 지역과 다른 점이라면, 곳곳에서 들리는 철이 갈리고 운반되는 소리와 매캐한 냄새 등 오감 체험이 가능한 곳이라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시내의 공장을 외곽으로 이전시키는 정책과 산업의 변화로 문래동 역시 쇠퇴하며 빈 자리가 늘어났고, 이를 저렴한 작업 공간을 찾던 예술가들이 공간을 조성하며 현재의 모습을 이룬 것이다. 약 100여 개의 작업실에서 200여명의 예술가가 활동하고 있으나 여전히 수년 전부터 추진된 재개발로 이후의 모습을 예측하기는 미지수다.

대로변의 건물들뿐만 아니라 슬로푸드 레스토랑, 나무공방, 사진 갤러리, 게스트 하우스, 대안 공간 등 예술가들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고민하는 공간들을 방문할 수 있다. 또한 신진 작가들의 전시와 공연, 세미나 등 지역주민과 연계된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커뮤니티 활성화를 꾀하는 등 참여할 수 있다. '문래동네' 무료 잡지의 발행과 블로그 운영 역시 공동체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재개발이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어 노후한 건물의 취약한 단열과 열악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과제로 남아있다.



환경계획연구소 “Summer Academy”

환경계획연구소에서는 여름방학 동안 환경대학원생 및 기타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Summer Academy”를 개설하였다. 개설강좌는 ‘질적 방법론/논문작성법/글쓰기/도시사진/고급통계분석’의 5개 강좌였으며 학생들의 높은 등록률과 참석률을 보였다.

강좌명과 강의 일정 및 강사는 다음과 같다.

일정	강좌명	강사
7월 22일(월) 2-5 pm	질적 방법론	박상미 (한국외국어대 국제학부교수)
7월 23일(화) 1-3 pm	논문작성법	장수은 (환경대학원 교수)
7월 23일(화) 3-5 pm	글쓰기	김형국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7월 24일(수) 2-5 pm	도시사진	주상연 (사진작가)
7월 25일(목) 2-5 pm	고급통계분석	김경민 (환경대학원 교수)

질적 방법론

‘Summer Academy’ 첫 번째 강좌는 “질적 방법론”으로 한국외국어대 국제학부 교수인 박상미 교수의 강의로 세 시간여에 걸쳐 진행되었다. 본 강좌에서는 민족지적 연구방법이라고도 불리는 질적 연구방법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과 여러 사례를 소개한 후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질적 연구방법은 크게 면담과 관찰로 나누어진다. 면담은 구조화된 면담, 중간 구조화된 면담, 구조화되지 않은 면담으로 나누어진다. 친밀한 관계를 위한 라포 형성이 중요하며, 면담한 사람들이 그 집단을 대표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관찰의 경우 참여관찰과 직접관찰로 나눌 수 있다. 참여관찰의 경우 말없이 한 집단에 참여하는 것은 연구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직접관찰은 아이들이 연구대상일 경우에 좋은 방법이다. 고전적 인류학의 경우에는 닫힌 커뮤니티나 단일 커뮤니티를 연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현대의 추세는 문제나 이슈를 중심에 놓고 연구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세계화를 반영하여 세계의 여러 장소에 대해 연구하는 형태도 빈번해지고 있다. 질적 연구방법의 사례로는 ‘대만의 TV 방송국의 근로 문화’, ‘맥도날드 연구’, ‘시공간의 문제와 관련한 휴대전화 연구’, ‘스타벅스 연구’, ‘김치’, ‘베트남과 캄보디아 무형문화재 연구’, ‘강릉단오제’ 등이 있었으며 공간적 특성에 대한 연구사례로 ‘인사동, 가로수길, 강남’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단순히 현장에 있는 것과 민족지적 연구를 한다는 것의 차이점을 묻는 말이 나왔다. 박 교수는 연구자의 주관성의 유무라고 답하였으며 또한, 질적 연구방법의 경우 가설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개개인의 각기 다른 배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냐는 질문에는 개인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는 논문이 명쾌해지지는 않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석에 대한 고민은 어려워도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덧붙였다.

논문작성법

7월 23일 오후에는 장수은(환경계획학과) 교수의 “논문작성법” 강좌가 있었다. 논문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연구 윤리와 작성 스타일 등의 내용을 Jordan 1999, 김형순 2010를 참고하여 작성, 설명하였다.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입증 주장하는 것으로 Paper, Thesis, Essay 등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SCI 논문 선정 요건과 저널 평가 지표를 설명하며 좋은 논문의 기준에 대하여 말하였고, 제목-초록-서론-선행연구고찰-연구방법-분석-결과-고찰-결론 등 대표적 구성에 따라 작성 요령을 알려주었다. 항목별 고려사항, 표현에 있어서 Do/Don't로 구분하였고 영어 논문 작성 팁 등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글쓰기

논문작성법 강좌이후 이어진 김형국 명예교수의 “인문적 사회과학 글쓰기”는 사회과학 글과 인문학 글의 경계와 매체에 따라 대학과 언론에서 요구하는 형식이 다름을 설명하였다. 객관성을 유지하며 편편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원칙과 기승전결 글쓰기의 순서 및 문장력, 외국어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받은 한국어를 올바르게 쓰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었다. 우리말 시제와 다듬는 편집 방식 제안, 좋은 글을 쓰기 위한 훈련법 등 선학으로서 후배들에게 당부와 조언의 말을 덧붙였다.

도시사진

'Summer Academy' 세 번째 강좌는 “도시사진” 수업으로 주상연 사진작가가 세 시간 동안 실제 작가들의 도시사진을 보여주며 강연하였다. 사진의 역사를 간단히 소개하고 여러 작가의 실제 작품들을 보여주며 간단한 사진 이론들을 설명하였다.

사진의 역사는 180년이 되었다. 사진기가 발명되면서 우리는 사물을 매체를 통해 볼 수 있게 되었다. photography라는 단어는 빛과 그림이라는 뜻이 합성된 조어이다. 좋은 사진은 빛이 그리는 드라마가 시각에 의해 선택되고 프레임 되는 것이다.

윌리엄 헨리 탈봇은 카메라 없이 감광제 위에 사물을 놓고 찍은 회화 같은 느낌의 사진으로 유명하다. 이 밖에도 인물 사진을 풍경처럼 찍어냈으며 혼이 담겨 있는 집 사진들을 작업한 에드워드 커티스, 핵실험의 잔재들이나 변형된 풍경을 주제로 한 에미트 고윈, 새로운 시각에 대해 연구한 해리 칼라한, 집이 변화되는 과정을 작업했던 윌리엄 크리스틴베리, 미국의 삶과 시간과 공간을 잘 보여줬던 로버트 아담스, 생생하고 현대적인 감각의 색을 보여준 스테판 쇼어, 원자력 발전소 시리즈를 통해 간접적으로 위험을 말했던 존 팔 등의 외국 작가들의 작품 소개가 이어졌으며, 한국 작가로는 10년간 서울을 찍는 작업을 했던 이윤진의 작품들을 보여주었다.



주 작가는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 절대음감이 중요하듯이 사진을 찍는 사람에게는 절대광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은 구성으로 리듬이 생기며 크기에 대한 장난과 프레임이라는 속성으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매체라는 것이다. 현장 사진을 찍을 일이 많은 환경대학원 학생들에게 도시사진 수업은 사진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고급통계분석

일정의 마지막 강의는 25일 김경민(환경계획학과) 교수가 맡은 '고급통계분석'이었다. 수강생들의 수준과 의향에 맞추어 진행되었고, 통계를 처음 혹은 기초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연구 실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러나 단시간 내 프로그램 구현을 위한 정보를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개괄적 내용을 이해 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로써 제1회 환경대학원 Summer Academy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수업소개

도시설계스튜디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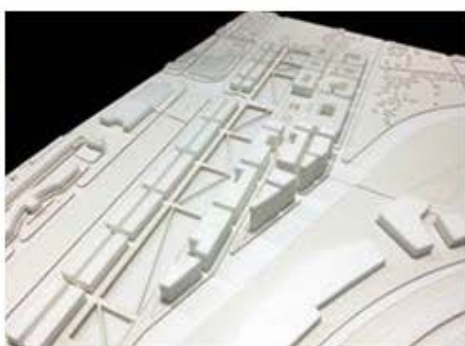
환경조경학과 도시설계전공 김세훈 교수는 매년 2학기 “도시설계스튜디오2”를 강의한다. 이는 협동과정 도시설계학 전공에서 개설되는 스튜디오 수업으로, 수강생들은 국내외 크고 작은 도시설계 대상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능력과 설계안 제안의 여러 기법을 체득하게 된다. 학부에서 건축/조경/도시설계의 기초를 학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대상지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공간적 가치를 새로이 창출하는 것이 본 스튜디오의 목표이다.

2013년 2학기에는 베트남 다낭시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비정형적 커뮤니티를 설계 대상으로 선정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주변의 태국, 라오스, 미얀마 등과 함께 아세안의 대표적인 신흥 개발대상국이다. 인도차이나 반도의 이들 나라들은 20세기 후반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후에도 전쟁 혹은 독재정권의 집권으로 인해 자생적인 근대화가 더디게 진행되었다. 최근 각종 해외원조와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바탕으로 두 나라 모두 매년 6~7%의 GDP 성장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경제발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커뮤니티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로 인해 삶의 질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여전히 캄보디아 국민의 34.7%가 빈곤선 아래에 있으며 28.4%의 어린이들이 영양부족 상태에 있다. 아열대 몬순기후에서 발생하는 잦은 태풍과 쓰나미 등의 환경재해로 반복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며, 도시인구의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매립지의 용량 초과와 제한된 도시서비스 수준으로 인해 폭증하는 도시폐기물이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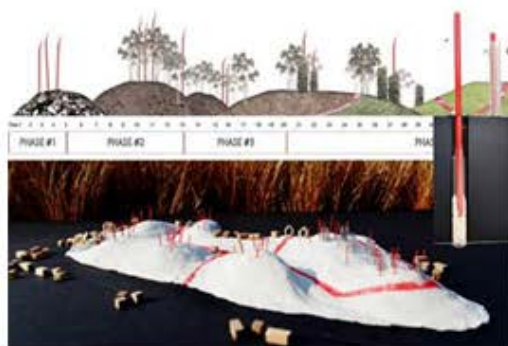
보다 구체적인 설계 대상지는 1) 다낭시의 호아안 주거지구, 2) 프놈펜시 보앵락 호수 주변, 3) 프놈펜시 상캣스텝멘체이 쓰레기 매립지이다. 이 중 한 곳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각 대상지는 우기에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피해, 대규모 호수 매립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타격 상실, 폐기물의 집중적 처리와 일용직 근로자의 생존권 등 복합적인 환경 문제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스튜디오 수강생들은 세 단계의 과정을 통해 도시설계안을 제시하게 된다. 첫 6주간은 대상지 해석과 환경문제 분석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대상지의 지형, 기후, 도로망, 가로환경, 블록특성, 건축물, 수자원 분포, 토지이용 현황, 거주자의 사회생활, 건강위험요소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각 대상지의 GIS 데이터, 수치지형도, 관련 연구자료, 다른 대상지의 도시설계안 등이 학생들에게 주어진다. 그 다음 3주간은 컨셉 디자인과 프로그램 선정 단계이다. 첫 단계에서 학생들이 찾아낸 환경문제를 감소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개념을 시각화하고 이러한 개념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마지막 단계는 최종 설계안 제안이다. 약 1:3,000스케일의 광역도시분석과 1:1,000스케일의 도시맥락 분석, 그리고 1:500 내외의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조감도, 투시도, 모형 등을 제시하는 것이 본 스튜디오의 최소 요구 조건이다.



1) 다낭시의 호아안 주거지구



2) 프놈펜시 보앵락 호수 주변



3) 프놈펜시 상캣스텝멘체이 쓰레기 매립지

협동과정 도시설계학,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환경조경학과 소속 석사과정생 17명이 수강한 이번 스튜디오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었다. 한 예로 유지연 학생은 호아안 지구 상습 범람지역의 습지환경을 재해석해 습지 축을 베트남 특유의 세장형 습하우스 중정으로 관입시키는 도시설계안을 제안했다. 신수경 학생은 보앵락 호수의 강제 매립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가족들이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호수 남쪽에 새로운 주거-상업 복합시설을 제안했다. 심지수 학생은 프놈펜의 쓰레기매립지가 그 사용연한이 끝난 후에도 그곳에서 오랜 기간 생계를 유지했던 일용직 노동자의 경제적 자립 밀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매립가스 배기시설을 설치하고 이 시설이 향후 후추농장을 위한 기반시설로 재활용될 수 있는 야심찬 작업을 진행했다.

교수동정

교수동정

◎ **김경민 교수**(환경계획학과)는 교수가 12월에 발간한 『Rethinking Seoul [리씽킹 서울] 도시, 과거에서 미래를 보다』의 창신동 부분 연구를 진행하면서, 지역 산업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의 일환으로 고려대 김영규 교수, 세스넷 정선의 대표, 신상욱 대표 등 지인들과 함께 소셜 벤처 'Urban Hybrid'를 공동설립하였다. Urban Hybrid는 8월 관악구 유종필 구청장과 MOU를 체결하였고, 관악구 커뮤니티에 긍정적 임팩트를 구현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중이다. 그 일환으로 전략 실현 플랫폼 (아지트)을 계획 중인데, 웨어오피스 + 커뮤니티공간으로 구성될 아지트는 2014년 4월경 완공예정이다. 또한 창신동 지역활성화를 위해 창신동 기반 지역오피스 '창신동 The Table'을 10월 개소하였고, 이를 거점으로 공정거래 패션(FTA: Fair Trade Apparel) 실현을 위한 운동을 시작하였다. 압도적 규모의 동대문 패션판매시설에 가려진 창신동의 현재를 알리는 공간 브랜딩의 일환으로 12월 20일 '창신동, 미디어로 꿰매다' 이벤트와 관련 심포지엄을 창신동 소재 전태일재단에서 개최한다. 또한 Sotiris Tsolacos 교수(University of Reading 경영대학원 부동산학과장, 영국)와 아시아 주요 금융도시 오피스 시장에 대한 연구(Yield Adjustments in Major Asian-Pacific Office Markets)를 진행하였고, 7월 교토에서 열린 아시아부동산학회에서 발표하였다.

◎ **김기호 교수**(환경조경학과 명예교수)는 2013년 11월 11일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기후변화대응연구원(RICCR) 창립기념 국제 컨퍼런스로 "Workshop: For the 2014 EPI and the Guiding Stars Project / Inauguration of the Guiding Stars Network"를 개최하였다. 기후변화대응연구원은 2013년 7월에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원으로서 김기호 교수가 원장으로 취임하였으며, 기후변화의 대응을 위한 도시 디자인, 에너지, 지역시스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PI(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매 2년마다 발표하는 국제환경성가지수로 미국의 Yale대학교와 Columbia대학교에서 주관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EPI의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The Guiding Stars Project는 Yale, Columbia와 함께 한국에서 기후변화대응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다. 국제 컨퍼런스는 1)Breakfast Session, 2)Morning Session, 3)Afternoon Session, 4)Evening Session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Breakfast Session은 "Introduction to the EPI and Guiding Stars Project"를 주제로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표는 문국현 뉴패러다임 인스티튜트 대표가 'Invitation to the Guiding Stars Network'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문국현 대표는 현 EPI 체계의 진화와 발전을 위한 Guiding Stars Project에 대하여 컨퍼런스에 참석한 우리 사회 각 영역의 리더들이 가치와 중요성을 공유하는 Global Network를 만들어, Zero-Carbon Planet을 비전으로 하여 이를 위한 전략들과 핵심 프로그램들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Guiding Stars Network Declaration으로 Guiding Stars Project를 지원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하는 멤버가 되자고 제안하였다. 두 번째 발표로 Yale대학교의 Jay Emerson 교수가 EPI와 Guiding Stars Project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 번째 발표는 C40 도시 기후 리더십 그룹의 동아시아 사무소 디렉터인 Yan Peng이 'Cities Make Meaningful GHG Reductions'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Yan Peng은 C40가 기후변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운동 및 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뉴욕, 요하네스버그, 호치밍 시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소개하였다.

Morning 및 Afternoon Session은 EPI 전문가 Workshop으로 진행되었는데, 2014년 EPI의 주요 내용과 Guiding Stars Project의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Morning Session에서는 Yale대학교의 Angel Hsu 박사가 'The 2014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and Guiding Stars'에 대해 발표하였다. Angel Hsu는 2014년 EPI가 기존 체계와 달라지는 점과 이에 대한 분석 결과에 대해 말하였다. Afternoon

Session에서는 환경과문명의 정회성 대표가 'Towards a New Post-2015 SD Indicators System'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정회성 대표는 현 EPI의 체계를 평가분석하고, 향후 새로운 기후체제를 위한 개선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Evening Session에서는 Breakfast Session에 이어 Guiding Stars Project를 위해 이 시대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을 모시고 Guiding Stars Network을 출범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기호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상으로 'Zero City Declaration'을 발표하였다. Zero City는 새로운 도시의 건설이 외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고 에너지, 물, 폐기물들을 외부에서 공급받거나 배출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이다. 김기호 교수는 Zero City 구현을 위한 '10계명'을 소개하고, 궁극적으로 도시디자인을 통해 Zero City를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김세훈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3년 11월 12-14일까지 개최된 The SMART Water Grid International Conference 2013에서 아래와 같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 Saehoon KIM * Urban Design and Water Resources in Asian Cities*

또한 김 교수는 지난 10월에 Peter G. Rowe 교수 등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Methodological Notes on the Spatial Analysis of Urban Formation, Harvard University, GSD 2013』을 출간하였으며, 건축학과 전봉희 교수, 권용찬 박사와 함께 'Unraveling the factors determining the redevelopment of Seoul's historic hanoks'이라는 논문을 작성하여 2014년 1월 Habitat International Volume 41. 에 게재될 예정이다.

◎ 성종상 교수(환경조경학과)는 세계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국제협의체인 이코모스(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의 한국 위원회 회원으로서 호주에서 열린 'ICOMOS ISCL & CIIC Annual Meeting 2013 및 Australia ICOMOS Conference 2013'에 참가하였다. ISCL(International Committee on Cultural Landscape)과 CIIC (International Committee on Cultural Routes)는 이코모스의 국제분과학술위원회 중에서 문화경관을 다루는 핵심 분과위원회이다. 호주 시드니와 캔버라에서 열린 2013 연례모임에서는 ISCL 위원장인 Monica Luengo(스페인) 외 전 세계 15개국 대표들이 모여 ICOMOS Cultural Landscape 선언서 작성, World Rural Landscape Initiative 준비작업, 20C Cultural Landscape(park, garden)의 보전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별히 이번 모임에서 2015년 annual meeting을 한국에서 가질 것을 제안 받아 현재 한국 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 중에서 한국 측에서 참여할 필요가 있는 Cultural Landscape 과 관련된 국내 자료조사와, World Rural Landscape Initiative 작성을 위한 한국측 자료 조사 및 연구는 앞으로 국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성 교수는 2013 annual meeting에 이어 열린 Australia ICOMOS Conference 2013에도 참여하여 한국정원에 대한 연구발표를 하였다. 3일 간 각국의 전문가 80여명이 발표한 동학술회에서 성 교수는 Imagined Past, Imagined Future라는 주제에 맞춰 '意園 Ui-won, the 18-19c Joseon Scholar's Garden of Imagination'라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의원이라고 하는 독특한 조선조 선비정원에 대한 의미와 미학에 대해 각국 전문가들의 깊은 관심과 공감대를 확인함으로써 한국정원의 가치를 재조명한 것은 이번 발표의 의미였다. 한국 이코모스의 Cultural Landscape 분과를 대표하여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성종상 교수는 Voting Member로 선출되어 앞으로 더욱 활발히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성종상 교수는 지난 9월에 있었던 서울대 건강주간(9월 25~27일, SNU Health Week) 행사의 일환으로 정원을 설계, 시공하여 전시하였다. 서울대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캠퍼스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기획된 건강주간행사는 3일간 서울대 본부 앞 잔디밭에서 열렸다. 기획 단계부터 준비위원으로 참여한 성교수는 인간의 육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위한 정원의 효용을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치유와 회복의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정원을 학생들과 함께 설계하여 전시하였다. 한정된 예산과 짧은 전시기간이라는 제약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협조와 참여로 추진되었다. 정원용 가구 및 소품들은 외부업체(더 가든스)로부터 무상 임대하였으며, 장식용 천과 미술작품은 교내 생활과학대학과 미술대학 교수 및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설치하였다. 또 경계 울타리는 조경자재용 페팔레트를 업체(공간 세라믹)로부터 지원받아 재활용하여 사용하였다. 설계, 시공, 운영의 전 단계에 조경학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환경대학원의 홍보 제고와 함께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을 위한 환경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긍지도 함께 키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 **손용훈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3년 8월 30일에서 9월 1일까지 3일에 걸쳐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국제학술회의 "Spatial Plann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에 참여하여 Close Ceremony of SPSPD2013 섹션에서 'Announcement of SPSPD2017, Seoul'를 통해 SPSPD 국제학술대회 2017년 서울개최를 확정지었다. SPSPD 국제학술회의는 2010년 계획 및 설계에 관한 연구자 및 전문가들이 모여 최근의 공간계획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학술회의 발표분야는 도시정책, 계획 및 설계, 교통계획, 조경설계, 지리학이며, 미국·중국·일본·한국 등의 우수대학교 교수진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2017년 서울개최를 통해 국내 지속가능성 연구에 도약을 기대해본다.

◎ **오능한 교수**(환경계획학과)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미국 지질조사국 연구진과 공동으로 하천의 용존유기탄소(DOC) 유출량에 농업활동과 집중강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논문을 발표하였다. 강의 수질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은 목적으로 진행된 이 연구에서 연구진은 관개배수와 집중강우가 하천의 DOC 유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하였다.

· Oh, N.H., Pellerin, B.A., Bachand, P.A.M., Hernes, P.J., Bachand, S.M., Ohara, N., Kavvas, M.L., Bergamaschi, B.A., and Horwath, W.R. The role of irrigation runoff and winter rainfall on dissolved organic carbon loads in an agricultural watershed. *Agriculture, Ecosystem & Environment* (2013) 179, 1-10.

또한 오 교수는 총 9개국의 연구진과 공동으로 남아시아의 탄소수지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온실기체의 지역별 탄소수지를 맞추기 위해 진행된 이 연구에서 연구진은 남아시아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탄소와 강을 통해 유출되는 탄소의 양을 추정하였다.

· Patra, P.K., Canadell, J.G., Houghton, R.A., Piao, S.L., Oh, N.H., Ciais, P., Manjunath, K.R., Chhabra, A., Wang, T., Bhattacharya, T., Bousquet, P., Hartman, J., Ito, A., Mayorga, E., Niwa, Y., Raymond, P.A., Sarma, V.V.S.S., and Lasco, R. The carbon budget of South Asia. *Biogeosciences* (2013) 10, 513-527.

이외에도 오능한 교수(환경계획학과)는 유규연(석사과정), 정윤아(석사졸업)는 이화여대 박지형 교수(석사졸업)와 공동으로 2013년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merican Geophysical Union 학회"에서 'Comparison of in situ sensors in monitoring stream DOC concentrations' 제목의 포스터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하천의 용존유기탄소(DOC) 농도를 추정하는데 쓰이는 두 종류의 광학센서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대학교 학술림에서 진행된 현장 측정 결과 유기물의 형광특성을 이용한 센서가 하천의 DOC 농도를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를 응용하면 촘촘한 시간 간격으로 하천의 DOC 농도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해져 보다 정확한 생태계 탄소수지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2월 4일에는 오 교수가 주임교수로 담당하는 제6기 관악구 시민환경대학의 수료식이 열려 총 59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다. 매년 관악구(구청장: 유종필)와 공동으로 열리는 이 행사에서 환경대학원장과 관악구청장은 평생교육을 실천해 온 수료자들을 축하하였다.

◎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는 국내외에서 아래와 같이 다수의 강연과 주제발표를 하였다.

6월 강원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사회학회 전기학술대회"에 다음 두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 "4대강사업을 둘러싼 개신교 내부의 입장 차이: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김신영, 윤순진)"
- "기후변화 완화정책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입장 분석: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윤순진, 이승지)"

6월 한국기후변화학회 하계학술발표회에 한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 "국내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과정 평가: 16개 광역자치단체 세부시행계획을 중심으로 (김진아, 윤순진)"

9월 28~29일에 중국 북경의 칭화대에서 열린 "New Tendency of Urban Transformation in East Asia International Symposium"에서 논문을 발표하였다.

- "The world risk society and climate change: Implications for cosmopolitization in East Asia (Sun-Jin, Yun)"

10월, 윤순진 교수가 공동저자로 참여한 『환경사회학 이론과 환경문제, 한국환경사회학회, 한울』가 출판되었다. 10월 18일에는 서울대에서 열린 환경사회학회 가을 학술회에서 '서울, 북경, 동경 시민의 기후변화 위험인식 비교'를 발표하였으며, 11월 1~4일에 열린 "11th ASIA-PACIFIC NGOS` ENVIRONMENTAL CONFERENCE"에서 'The gap of discourses on the nuclear safety between pros and cons (Lee, H. and S. Kang, and S. Yun)' 를 발표하였다.

11월 2-4일에 중국 난징에서 열린 "동아시아환경사회학대회(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Environmental Sociology in East Asia)"에서 다음과 같은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 "An Analysis on the Starata of Environmental Discourses in Korean Protestant (Kim, S. and S. Yun.)"
- "AnExploratory Study on the Impact of Child Care on Resdential Energy Consumption and Energy Literacy of Mothers (Yun, S. and S. Yun)"
- "Developing Pro-Environmental Behavior (PEB) Indicators based on Consumption Literacy (Kim, E. and S. Yun)"
- "An Analysis on Conflict Strata around Thermal Effluents of Youngkwang Nuclear Power Plants (Hwang, M. and S. Yun)"

마지막으로 11월 13일에는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3 서울 국제에너지컨퍼런스"에서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in Seoul: Challenges and Opportunities'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 **이도원 교수**(환경계획학과)가 담당하는 환경생태 연구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실적을 보여주었다.

독일 바이로이트 대학과 강원대학교, 국립산림과학원 등과 함께 공동연구로 수행한 과제(복잡지형육상생태계 연구 TERRECO)의 일환으로 이도원 교수 연구팀은 밭 가장자리(field margin)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를 연구하여 결과를 국제 SIC(E) 전문 학술지에 논문으로 게재했다. 이 논문은 한국의 농촌경관에 흔히 발견되는 밭 가장자리(field margin)가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서비스 유지에 중요한 준자연 서식지라는 사실을 밝혔다.

- Kang, W., M. Hoffmeister, E.A. Martin, I. Steffan-Dewenter, Donguk Han, Dowon Lee.* 2013. Effects of management and structural connectivity on the plant communities of organic field margins in South Korea. Ecological Research 28:991-1002 (11월 발간).

지난 8월 몽골 국립식물연구소에서 개최한 한몽공동워크샵에서 이도원 교수는 조선시대의 물 이용 방식에 대해 발표했다. 문헌자료와 전래된 속담으로부터 전통사회의 물 사정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물 이용 방식을 소개하고, 보름 동안 몽골의 서부 항가이사막 일대를 답사하는 과정에 본 토지이용 변화를 지적하고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빗물과 지표수 이용과 관련된 우리의 전통생태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했다.

- Lee, D. and M. Han. 2013. Sharing Korean 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 of water management with Mongolian friends. A paper presented at Mongolia-Korea Joint Workshop on "Ecosystem services in arid and semi-arid landscapes of Mongolia: Building socio-ecological perspectives." Ulalaabataar, Mongolia, July 27, 2013.

지난 8월 서강대학교에서 개최한 "제68회 한국생물과학협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이도원 교수 연구팀의 노지현은 제주도 연안의 해역 인공어초에 서식하는 어류군집구조와 서식 환경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인공적으로 조성된 생물 서식지의 특성이 어류 종 구성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 Noh, J., Kang, W. and Lee, D. 2013. Effects of habitat characteristics on fish assemblages of artificial reefs along the coastal area of Jeju island. Poster presented at the 68th Annual Symposium of Korean Association of Biological Sciences, Seoul, Korea, 12-13 August, 2013.

지난 11월 일본 미야자키에서 열린 "제6회 전통산림지식 컨퍼런스"에서 이도원 교수 연구팀의 김고운(박사 2학기)은 자원과 관련된 속담의 분류와 내용 빈도를 분석하고 한국 속담에 나타난 한국 전통사회의 사회-생태계의 특성에 대해 발표하여 속담과 같은 민속자료가 전통생태 연구의 자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 Kim, G., D. Lee. and M. Nam. 2013. Social-ecological lessons from natural resource related Korean proverbs. A paper presented at a conference, "Saving Asian Traditional Forest Knowledge with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pp.37-43. Miyazaki University, Miyazaki. 6-8 November, 2013.

또한 본 컨퍼런스에서 이도원 교수는 마을숲의 소수 유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외형과 뒷산형 마을숲 역시 주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수구막이형 마을숲처럼 마을 사람들의 자연관과 생태관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하며, 이들 유형 역시 여러 생태적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마을 경관의 한 요소임을 제시하였고 정량적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 Lee, D., G. Kim, and C.-R. Park. 20013. Ecosystem services related to minor types of Maeulsoop in Korea. A paper presented at a conference, "Saving Asian Traditional Forest Knowledge with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pp.44-48. Miyazaki University, Miyazaki. 6-8 November, 2013.

◎ **이유미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3년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European Council of Landscape Architecture Schools(ECLAS) 2013 Annual Conference"에 참석하여 Landscape and Structure 분야 중 'Water and Structure' Session에서 'Design Adaptation for Sea Level Rise: Case Studies of Two Coastal Cities in Korea'를 제목으로 학술발표를 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연안도시인 목포와 동해안의 연안도시인 강릉을 대상으로 하여 각 해안의 성격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화된 해수면 상승 적응전략을 모식도와 예상도로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해수면 상승에 대한 매립지의 취약성을 지적하였고, 취약지역의 현황과 미래의 개발계획을 고려한 지역별 해수면 상승 적응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발표 후에는 해수면 상승 시 범람이 예상되는 지역의 도시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의 필요성이 향후 과제로 논의되었다.

◎ **이희연 교수**(환경계획학과)는 대한지적공사의 공간정보연구원으로부터 학술용역을 받아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2012년 말 인천 송도에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의 사무국을 유치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블루오션이 될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미리 구상한 연구이다. 특히 가장 기후변화 취약성이 높은 나라로 알려진 베트남을 2013년 9월 29일~10월 3일까지 방문하여 베트남 자원환경부의 토지행정청, 국가기후변화관리국, 환경과 지속가능개발계획 협회 등을 방문하여 관련자들과 심층 면담을 하였다. 또한 이 연구용역의 결과를 2012년 11월 30일에 열린 한국도시지리학회에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취약성 실태와 기후변화 대응과제: 베트남을 사례로(이세원, 이희연)'란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국토연구원의 도시재생지원센터로부터 학술용역을 받아서 인구감소와 경제침체로 쇠퇴해져가는 우리나라 축소도시를 대상으로 창조적 신재생방안과 전략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독일, 미국, 영국,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축소도시들에 대한 신재생전략들을 자세히 소개하였고,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4개 축소도시들을 대상으로 한 신재생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2013년 12월 말에 『길잃은 축소도시: 어디로 가야 하나?』 단행본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 **전상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3년 09월 26일 코리아나호텔에서 교육부 미래교육전략위원회의 초청으로 '창조형 사회와 미래인재'를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또한 9월 27일에는 2013년 한국교통문화포럼이 주최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세미나"에서 '자동차 교통문화의 인문사회학'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다. 10월 16일에는 새건축사협회에서 기획한 "2013 건축, 책을 묻다"에서 저서 『옥상의 공간사회학』에 대하여 강연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11월 1일에는 '도시와 공간의 문화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걷기'를 주제로 부산대에서 열린 "한국문화사회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걷기와 오감(五感)도시'를 환경계획학과 김미영(박사과정) 학생과 함께 발표하였다. 또한 11월 19일에는 경희대학교에서 열린 "인류문명연구회 세미나"에서 '도시 르네상스의 문명사적 이해'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12월 17일에는 한국도시계획학회가 주관하고 평택시와 아산시가 공동주최한 "문화융성의 시대, 창조문화도시의 비전 컨퍼런스"에서 '창조경제와 지역발전'을 주제로 기초강연을 하였다.

◎ **조경진 교수**(환경조경학과)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정원을 조성하는 서울시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의 조직위원장을 맡아 10월 10~13일 12개팀, 122명의 참가자와 함께 도심 정원을 조성하였다. 또한 조 교수는 (사)한국조경학회의 조경헌장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지난 10월 28일 조경의 가치, 영역, 대상, 과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한국조경헌장을 제정하고 선포하였다. 지난 9월 12일에는 수원시 행궁동 파빌리온에서 도시공원과 녹지의 학술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세계 공원전문가들이 모여 진행된 “수원국제그린포럼 2013”에 참석하여 ‘서울시 공원녹지계획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11월 7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한국FM(Facility & Management)학회 제19회 국제심포지엄 &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도시형 식물원을 활용한 지역커뮤니티 재생전략’을 발표하였다.

◎ **최막중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3년 8월 1일자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추진단 단장으로 임명되었다. 추진단은 시흥시 군자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서울대학교 캠퍼스 부지를 확보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다. 또한 최 교수는 아시아 도시계획 교육기관 협의회(Asian Planning Schools Association, APSA)의 집행위원 자격으로 2013년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대만국립대학교에서 개최된 APSA 국제학술대회와 집행위원회, 총회에 참석하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을 비롯한 아시아 도시계획 교육기관 사이의 교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지난 11월 20일부터 24일에는 인도네시아 Diponegoro University (UNDIP)에서 개최된 “201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gional Development”에 초청연사로 초대되어 ‘한국과 서울의 도시계획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인도네시아 UNDIP 대학교간 공동워크숍, 공동연구, 학생 및 학점교류 등의 교육□연구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싱가포르 도시개발청(URA: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의 국제전문가패널(IPE, International Panel of Experts)로 선임되었다. URA IPE는 전 세계 경제계, 학계 등을 대표하는 12명의 인사로 구성되어, 향후 3년(2014~16년) 동안 싱가포르의 도시발전 전략에 대해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교수출간



리씽킹 서울: 도시, 과거에서 미래를 보다

김경민 교수(환경계획학과)는 12월 『Rethinking Seoul [리씽킹 서울] 도시, 과거에서 미래를 보다』를 출간하였다. 책의 내용은 역사 보존과 개발의 균형에 관한 것으로, 많은 해외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이 둘이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 균형을 이룸으로써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음을 담고 있다.

이 책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옥집단지구인 익선동, 우리 웃과 소리가 집적되어 있는 국악로와 아직 남아 있는 국악로 주변 피맛골, 최초의 민간협동개발 협력사례이자 음악산업의 메카인 낙원상가, 우리나라 패션 1번지로 거듭나고 있는 (구) 구로공단, 근대적 삶의 궤적이 남아 있는 가리봉동과 동대문 창신동, 조선영단주택단지 이화동과 문래동에 대한 이야기다. 이 지역들은 나름의 가치가 있음에도 현재 재개발지역으로 묶여 있거나, 개발의 위험이 아직도 상존하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를 도시 개발의 측면에서 보자면 지역의 외관이 많이 쇠퇴하였기에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치 때문에 보존의 당위성이 존재하나, 해당지역의 환경이 지역민들이 살기에는 결코 좋지 않기에 지역의 물리적 환경개선 역시 필요한 형편이다. 이 책은 단순히 해당 지역들의 역사적, 산업적, 문화적 가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과 전략이 필요한지를 논하고 있다. 과거 새롭고 높고 거대한 건물 위주의 건축을 도시 경쟁력의 근원으로 보았던 시각에서 탈피하여, 서울에 남아 있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여 재활용하는 것이 진정한 경쟁력을 알려준다.

관련 연구를 위해 김경민 교수 연구팀 (공정개발 공유가치 연구소) 대다수 학생들은 지난 2년간 창신동과 가리봉동, 익선동에 대한 지역연구에 매진하였다. 해당 지역의 연구를 기반으로 석사논문과 학술논문들이 진행 중이다. 박재민(협동과정 조경학)가 상해지역 산업유산 자료정리를 담당하였다.



도시형태변화분석방법론노트

김세훈 교수(환경조경학과)는 하버드대학 Peter Rowe 교수 등과 함께 『도시형태변화분석 방법론노트 Methodological notes on the spatial analysis of urban formation』을 영문으로 출간하였다. 도시설계학이 하나의 학문분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관련 분야인 건축학에 비해 매우 최근의 일이다. 사회과학과 응용학(혹은 예술학) 사이의 어느 곳엔가 그 학문적 뿌리를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설계분야 연구자들은 잦은 정체성 혼란과 일관된 방법론의 부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무엇보다 도시설계라는 행위의 결과물인 도시형태가 어떤 사회적 혹은 환경적 효과를 갖는지에 대해 명쾌하게 밝히거나 정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도시설계학은 소위 “디자인의 탈을 쓴 유사과학” 혹은 “사이비 과학”이라는 비난도 적지 않다. 본 저서는 이러한 고민과 혼란에서부터 출발했다. 비교적 거시적인 차원에서 도시형태의 변화를 어떤 학문적 근거로 설명할 수 있을까. 연구마다 서로 다른 방법론을 시도함으로써 겪게 되는 시행착오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타 분야, 이를테면 공간분석학, 통계학, 도시경제학 등에서 그 기틀이 마련된 다양한 사회과학적 방법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본 저서의 근간에 깔려 있다. 전통적인 도시설계 분야의 문제 해결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조금은 낯선 책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가로환경이 더 아름다운가라는 미시적이고 규범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도시설계 담론의 기승전결은 도시설계 분야 내부에서 완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연구자에게도 편하게 읽히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도시의 크기(rank-size rule), 위치(location), 접근성(access), 성장과 변화(growth and change), 적합성(suitability), 다양성(diversity)과 압축성(compactness), 건축유형(typology and morphology), 환경성능(environmental performance)과 같은 도시지표를 통해 변화를 읽고 예측하는 방법에 대한 실용적인 참고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더 적합한 책이다.

본 저서에 소개된 거의 모든 방법론과 관련 도판은 도시설계를 전공한 저자들이 직접 수집한 데이터와 선별한 방법론에 기반하여 만들어졌다. 따라서 본 저서는 다른 분야의 방법론을 쉬운 말로 소개한 교과서가 아니다. 그보다는 정량적 연구방법론에 대해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연구자들이 도시형태 관련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시각화하고, 그 의미를 논의했던 일련의 워크숍 결과물이다. 따라서 많은 내용이 시각화된 도면과 다이어그램을 통해 표현되었다. 물론 전문서적이기 때문에 일반 독자가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교양서와는 다르겠지만, 도시를 시각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관련 분야의 독자라면 책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읽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저자의 대부분이 아시아 도시를 연구한다. 따라서 많은 사례가 아시아의 도시, 이를테면 서울, 중국의 우한 및 양쯔델타 지역, 베트남 호치민 등을 다룬 측면도 본 저서의 특징 중 하나이다. 물론 이 책을 통해 도시설계가 사이비과학의 누명을 쉽사리 벗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도시 형태라는 관찰과 연구의 대상이 여러 가지 분석 방법론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석·박사과정

2013학년도 2학기 입학

환경계획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환경계획학과는 8월 21일(수), 환경대학원에서 2013년 후기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는 박사과정 8명, 석사과정 25명으로 총 34명의 신입생이 참석하였으며, 총 3부로 나누어 행사가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학과 조교들의 학과 및 환경대학원 시설 소개, 수료요건 소개가 있었고, 2부에서는 8개 조로 나뉜 신입생들이 서로를 소개한 후, 교수님들과 동기들 앞에서 앞으로의 학업계획과 포부를 재미있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3부는 낙성대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교수님과 학생들이 친교를 나누며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편안한 시간이 되었다.

환경조경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환경조경학과는 8월 28일(목) 환경대학원에서 2013학년도 후기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 학과소개 및 수강신청, 학과장님 면담순서로 진행된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학과교수 및 조교, 신입생, 재학생 일부를 포함하여 총 30명 정도가 참여하였다. '한 장으로 소개하는 자기소개'를 통하여 신입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었으며 이후 낙성대에서 열린 환영의 시간을 가졌다.

2013학년도 2학기 장학금 수여

8월 29일 졸업식에서 재학생에 대한 2013년 2학기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 환경대학원에는 크게 발전기금 장학금, 동창회 장학금, 고위과정 동창회 장학금, 교통동문 장학금, 환경관리동문 장학금 등 총 다섯 종류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발전기금 장학금은 외부인사가 장학금으로 기탁한 발전기금에 의해 성적우수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故 임길진 교수 기념 장학금**, **미라보 장학금**, **청송 장학금**, **구재서 장학금**이 있다.

故 임길진 교수 기념 장학금은 미국 미시간 주립대 교수로서 세계 도시계획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다 작고하신 임길진 교수님을 기리며 유가족께서 기탁하신 장학금으로 2013년 2학기에는 환경계획학과 **한수경**(박사 3학기)학생과 환경조경학과 **성혜승**(박사 3학기)학생에게 수여되었다.

동창회 장학금은 환경대학원 총동창회에서 전공별 석사과정 재학생들 중 성적이 우수한 4명의 학생에게 매학기 수여되는 장학금으로서, 환경계획학과 **이다예**(석사 3학기), **이윤혜**(석사 3학기), **김거중**(석사 2학기), 환경조경학과 **김현정**(석사 3학기) 학생이 선정되었다.

환경대학원 도시환경최고위과정에서 전달하는 **고위과정 동창회 장학금** 역시, 환경계획학과 **박용철**(석사 2학기), **소윤상**(석사 2학기), 환경조경학과 **양유선**(석사 3학기)학생에게 전달되었다.

교통동문 장학금은 환경대학원 교통동문회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교통관리 전공학생에게 수여하는 장학금으로 교통전공 **조황영**(석사 2학기)학생에게 수여되었다.

환경관리동문 장학금은 석박사과정생의 국내외 학술지 게재, 학술발표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를 기준으로 수여자를 선정하였는데, 환경관리전공 **장리아**(석사졸업), **한은정**(박사졸업)학생에게 수여되었다.

학생회 활동

학생회실, 여학생휴게실, 회의실 개소식

지난 10월 21일 환경대학원에서는 학생회실을 비롯하여 여학생휴게실, 회의실 세 곳에 대한 개소식이 있었다. 이번 행사는 최막중 환경대학원 원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이유민 학생회장의 학생회장선거 공약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개소식을 통해 환경대학원 2층 217호는 학생회실로, 218호는 여학생휴게실, 그리고 219호는 휴게실로 활용하게 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최막중 원장과 조경진 부원장,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 학과장), 이유미 교수(환경조경학과 학과장)를 비롯하여, 학생회장 및 학생회 학생 8명이 참석하였다. 행사는 최막중 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이유민 학생회장의 답사, 떡케이크 커팅 순으로 이어졌으며, 참석한 교수와 학생회 학생들이 간단한 음료로 축배를 들면서 마무리가 되었다.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더욱 활발한 학생회 활동 및 더 나아진 학생 복지가 기대된다. 2013년 12월 현재 많은 수의 학생들이 여학생휴게실과 회의실을 사용 중이며, 이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다.



Back to School Party

환경대학원 신입생환영회 겸 개강파티가 'Back to School Party'라는 이름으로 지난 9월 6일 오후 5시 환경대학원 건물 옥상정원인 '하늘마당'에서 열렸다. 환경대학원 교수, 재학생, 신입생 등 약 70여명이 모여 긴 여름방학을 마무리하고 새 학기를 힘차게 시작하는 의미를 다지는 시간이었다. 학생회 주체로 간단한 다과 및 식사가 마련되었으며, 성종상 교수(환경조경학과)와 전상인 교수(환경계획학과)의 축사가 있었다. 학생회 소개가 이어졌고, 전공대항 레크리에이션이 시작되면서 파티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행사가 마무리된 후에는 낙성대 Hebas Cafe에서 2차 모임을 통해 친목을 다지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개강파티는 재학생들에게는 방학 동안 볼 수 없었던 이들과 재회하는 시간이었으며, 후기 신입생들은 입학식이나 환경계획-설계와 같은 대형 수업이 없는 대신 개강파티를 통해 신입생 또는 재학생, 타전공생들과 만나는 자리였다. 이번 행사는 환경대학원 구성원들에게 즐겁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새 학기에 대한 각오를 다지며, 환경대학원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끽하는 계기가 되었다.

6

도시·환경 최고위과정

SGS 30기 출범식



지난 9월 24일(화),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제30기 도시·환경최고위과정의 출범식이 있었다. 최막중 원장은 "환경대학원이 40주년을 맞아 과거공간을 만드는 리더'역할에서 '공간의 가치를 창출하는 리더'역할로 한 단계 도약해야 한다"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도시·환경최고위과정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융·복합 개념에 기초한 프로그램혁신을 통해 명품강좌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펠로우분들의 도움과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롭게 주임교수를 맡은 성종상 교수는 과정 개편 및 프로그램 혁신의 큰 방향은 기존의 도시·환경 프로그램에 인문학적 사유를 융합하여 가치 '도시·환경 인문학'을 천착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펠로우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더하여 함께 과정을 운영할 공동주임교수인 홍중호 교수, 최명철 소장(단우건축), 제종길 전 국회의원(17대)을 소개하였다.

2014년 4월 25일(금) 수료예정이며 35명의 Fellow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석웅(타드 대표이사), 강원수(대동녹지건설, 대아종합조경 대표이사), 고용현(정림건축종합 건축사 사무소 상무이사), 김복식(한국토지주택공사 본부장), 김상욱(한국철도공사 건축시설처장), 김완중(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이사), 김윤식(시흥시청 시장), 김종천(기안건축사 사무소 대표이사), 김현택(신영FC 부장), 김효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나학균(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본부장), 박강희(프라브컴퍼니 실장), 박건태(Gaw Capital Advisors Korea 대표이사), 변종호(프로데코 대표이사), 서용교(국회의원), 서정모(창조종합건축사 사무소 전무),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 원장), 신우식(에가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신현범(닛시트로닉스 대표이사), 안세현(가원조경설계사무소 대표이사), 이강수(고창군청 군수), 이미경(환경재단 사무총장), 이정현(선진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이종택(미래엔텍 대표이사), 이종훈(국회의원), 이진수(라운드 대표이사), 이창현(서울연구원 원장), 이형철(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전태효(삼진엔피에스 사장), 조영일(S-Oil 부사장), 채내희(안중근의사기념관 사무처장), 최원만(신화건설링 사장), 최재정(JSB 대표이사), 최현호(서울산업주식회사 이사), 한정애(국회의원)



30기 국내시찰

국내시찰 (DMZ 양구, 평화생명동산, 을지전망대, 편치볼, 제4땅굴과 박수근 미술관)

30기 도시·환경최고위과정에서는 9월 28일(토)과 29일(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한국DMZ 양구, 인제 일원의 평화생명동산, 을지전망대, 편치볼, 제4땅굴과 박수근 미술관을 다녀왔다. 평화생명동산의 정성현 이사장은 "DMZ일원은 자연과 생명의 역동적인 역사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생태적 복원이 전개되고 있는 곳이다"는 설명과 함께 접경지역의 현재와 미래 비전을 설명해주었다. 더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생태적인 평화생명동산에서의 노력과 경험들을 이야기해주었다. 국내답사에는 최막중 원장, 성종상 주임교수와 20여 명의 펠로우가 참여하였으며,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접경지역의 생태경관을 살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국내시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 탐방)

지난 11월 30일(금)에 30기 도시·환경최고위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이강수 고창군수의 초청으로 동기 펠로우들의 고창방문이 있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의 문화와 자연생태'라는 주제로 고창읍성, 고인돌공원, 고창갯벌 등을 살펴보았다. 민선 3선이기도 한 이 군수는 각각의 장소에 깃든 역사, 문화, 생태적인 의미와 군정 철학을 이야기해주었다. 최막중 원장, 성종상 주임교수, 최명철 공동주임교수, 제종길 공동주임교수와 강원수 30기 자치회장을 비롯한 20여명의 펠로우가 참여해 오랜 역사와 문화유적을 간직한, 자연과 함께하는 행복한 고창을 새롭게 발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30기 해외시찰

30기 도시·환경최고위과정에서는 2010년 1월 17일(금)부터 22일(수)까지 4박 6일의 일정으로 '세계 3대 열대우림, 보르네오 생태보고 탐방'을 진행한다. 보르네오섬은 남미 아마존, 아프리카 콩고분지와 더불어 세계 3대 열대우림 지역으로, 특히 아시아 최고봉인 카나발루산(4,095m)이 위치한 북동부 말레이시아 사바주는 열대우림내 오랑우탄, 긴코 원숭이, 피그미 코끼리 등 세계적 멸종 희귀종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보고이다. 해외시찰에는 30기 펠로우 20여명과 선배 펠로우 4인, 성종상 주임교수 등 30여명의 참여한다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NEWSLETTER
No. 12

동문소식

7

동창회

총동창회 등반대회



환경대학원 총동창회는 매년 10월 셋째 주 일요일에 서울대학교 홈커밍데이 행사와 함께 등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10월 20일에 개최된 등반대회는 동문 및 가족을 포함한 40여명이 참가했다. 오전에 교내탐방 및 관악산 등반을 한 뒤 버들골 잔디밭에 앉아 점심식사를 하며 모교 재학생과 동문들의 공연과 함께 경품 추첨을 한 후 모든 행사를 마쳤다.

SGS 도시·환경리더십포럼

도시·환경 최고위과정은 7월부터 11월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과 함께 SGS동창회원을 대상으로 최고환경책임자 (CGO, Chief Green Officer) 교육을 수행하였다. 이는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정책·제도에 대한 이해도 고취 및 대응능력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이러한 교육 및 정보교환의 장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응을 통한 신사업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각 회 포럼은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총 4회의 포럼으로 진행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제	강연자
1차 포럼 10월 8일(화)	1. 국제 기후변화협상(UNFCCC) 동향	노동운 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
	2. 기후변화 인식과 기후변화정책인식: 시민과 전문가 인식과 실천 현황	윤순진 교수/서울대학교
현장탐방 및 2차 포럼 10월 19일(토)	3. 현장탐방: 에너지드림센터 / 헤이리 마을	
	4. 특별강연 기후변화와 친환경건축물	신승호 소장/삼성물산 친환경에너지연구소
3차 포럼 11월 5일(화)	5. 에너지, 여건의 변화와 하반기 전망	손양훈 원장/에너지경제연구원
	6. 세일가스 개발 환경산업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신윤성 박사/한국산업연구원
4차 포럼 11월 26일(화)	7. 기후변화와 신산업: 기회와 위협	이항구 팀장/한국산업연구원
	8. 기후변화 정책 수단의 이해 -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조용성 교수/고려대학교

포럼의 진행은 홍중호 교수(환경계획학과)와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가 맡아주었으며, 매 회 평균 50여명의 SGS 동창회원이 참여하였다. 특별히 3회 이상의 포럼에 참가한 32명에게는 오는 23일 '2013 SGS동창회 정기총회 및 송년행사'에서 이수증서와 기념품도 전달할 예정이다.



SGS동창회 장학후원 골프대회



지난 11월 15일(금) 경기도 이천의 실크밸리GC에서 "SGS동창회 장학후원 골프대회"가 개최되었다. 조백일 SGS동창회장, 이문구 골프모임 회장 등 동창회원 50여명 참여해 장학기금 조성에 뜻을 모았다. 대학원에서는 유병림 명예교수, 박종화 교수, 이유미 교수가 함께했으며, 이유미 교수는 대학원을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우승은 25기(김봉규 (주)유진엔비티 대표이사, 조승연 (주)에이치앤씨 건설연구소 대표이사, 권중환 (주)탑건설 대표이사)가 차지했다.

SGS동창회 2013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

SGS동창회(회장 조백일, 6기)는 지난 12월 23일(월)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목련룸에서 '2013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최막중 환경대학원장을 비롯한 60여명의 동창회원이 참여하였으며, 국악그룹 하나연이 초대되어 모임의 흥을 더해줬다.

총회에서는 조백일(6기) SGS동창회장을 이어 차기(6대) 회장으로 문국현(7기) 한솔섬유 대표이사가 참석자 만장일치로 추대되었다. 감사는 박만길(3기) (주)세테크 대표이사, 방기석(14기) (주)지비엠아이엔씨 대표이사 모두 유임되었다. 이어진 송년모임에서는 특별히 최막중 원장의 'GSES INITIATIVE 2013' 발표와 문국현 대표의 '자본주의 5.0: 공유가치 창조경제'를 주제로 강연이 이어져 대학원과 도시환경최고위과정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문제인식과 비전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과 도시환경최고위과정에서 SGS동창회 회원을 대상으로 10월 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진행되었던 기후변화·에너지 관련 CGO(Chief Green Officer)교육, '2013 도시·환경리더서포럼'의 수료자 32명에게 이수증서와 기념품이 수여되었다.



석·박사 과정 동문 동정

환경계획학과 동문동정

- **이강건**(계획 9회) (주) 선진엔지니어링 사장은 지난 10월 17~19일 수원 이비스 엠베서더 호텔에서 개최된 제43회 한일 기술사 국제컨퍼런스에서 '과학기술시대의 도래에 따른 창조경제 활성화와 경제주체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였다. 제43회 컨퍼런스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석영 과학기술인재관, 수원시 염태영 시장, 이재준 부시장을 포함하여 일본 기술사 117명, 양국 기술사 및 가족 311명이 참석하였다. 본 행사는 한국기술사회와 일본 기술사회의 연례행사로 1970년부터 43년간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 **정철모**(계획 11회) 전주대학교 교수는 2013년 7월 전주대 평생교육원장에 취임하였다.
- **정종관**(계획 17)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장은 11월 7~9일 일본 이치카와에서 열린 한국-중국-일본간 3국 환경영향평가학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정책의 학술정보교류 및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권영중**(계획 18회) 한국교통연구원 KTX경제권연구실장은 지난 11월 11일 '경전철 정상화, 방법 있다'라는 제목의 국민일보 시론을 기고하였다. (<http://news.kukinews.com/opinion/view.asp?page=1&gCode=opi&arcid=0007741598&code=11171314>)
- **박현**(계획 19회)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센터 소장은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로 임용되었다.
- **유향란**(계획박사 22회) 동문은 7월 중국 사외이사자격증을 취득하였다. 8월 8~18일에는 대만에서 열린 "대륙과 대만 양안 대표 회담"에 초대되어 대만 정부부처와 각 계 인사들과의 경제, 환경 관련 팀방과 '대륙과 대만의 재생가능에너지협력방안'에 관하여 주제발표를 하였다. 10월 3일에는 서울 광장동 워커히호텔에서 열린 "2013 Future Leaders Conference"에 연사로 초대되어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의 한중관계'로 주제 발표하였다. 10월 19~20일에는 중국 정저우에서 열린 "Delta Environmental Law Forum"에서 '대만재생가능에너지 현황'에 대해 주제 발표하였다. 10월 30일에는 『중국 재생가능에너지법의 핫이슈』 저서를 발간하였다. 11월 7~9일에는 일본 이치카와에서 열린 "The 3rd Japan-Korea-China Tripartite EIA & SEA Conference"에서 'Discussion on EIA system between Korea and China'에 대해 논문 발표하였다. 11월 23~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13 중국 환경법 총회"에서는 '한국의 기후변화적응법제'에 관하여 주제 발표하였다. 또한 12월 7일 중한가요대회에서 한국어MC를 진행하였다.
- **김찬성**(계획 25회) 동문은 2013년 10월 7일 자로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 소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 **서현교**(계획 29회, 계획박사 16회) 극지연구소 미래전략실 선임기술원은 13개월(2013년 11월~2014년 12월)간 남극세종과학기지 27차 월동대의 Station manager의 임무를 맡아 18명의 대원들과 함께 2013년 11월 30일 세종기지로 출국했다.
- **서형원**(계획 32회) 과천시의회 의원은 지난 11월 13일 온라인(블로그 및 SNS 등)을 통해 내년 6.4 지방선거에서 과천시장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http://ecopol.tistory.com/807>)

- **이태동**(계획 34회) 동문은 2013년 9월 1일자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11월에는 'Comparative Studies of Urban Climate Co-benefits in Asian Cities: An Analysis of Relationships between CO2 emissions and Environmental Indicators' 라는 논문을 SCI 저널인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58: 15-24 에 출간하였다.

환경조경학과 동문동정

- **조세환**(조경 10회)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도시경관생태조경 전공)는 지난 10월 28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회 조경의 날 기념식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한편, 지난 7월엔 용산공원추진협의회 의장으로, 9월엔 용산공원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 **오병태**(조경13회) 호남대학교 교수는 지난 11월 9일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 **김민근**(조경 18회) 롯데자산개발(주) 상무는 지난 11월 13일 중국 청두시에서 복합개발사업 기공식을 실시하였다. 중국 서부 대개발 정책의 중심 도시인 청두시에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며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부지 규모가 2만 1천 평이며, 연면적 15만 5천 평으로 대형시설이다. 쇼핑, 숙박, 업무, 엔터테인먼트, 시네마 그리고 주거시설로 구성된다.
- **김연수**(조경 29회) 동문은 금년 1월 14일부로 현대종합설계(주)로 이직하여 디자인연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 **문지영**(조경 34회, 협동과정조경학 박사 17회) 동문은 2012, 2013, 2014년 대한토목학회지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협동과정 조경학 공학박사학위논문 재구성하여 출간한 『상상 그 이상, 조선시대 교량의 비밀』이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9

고위정책과정 동문동정

고위정책과정 동문동정

- **유종국**(도시환경최고전문가과정9기) 솔로몬산업(주)대표이사는 지난 11월 1일 (재)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또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국후원회 부회장과 서울후원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 **최원오**(도시환경최고전문가과정10기) 펠로우는 지난 7월말 감사원 정기인사 때 '공공감사운영단'으로 자리를 옮겼다. '공공감사운영단'은 최근에 제정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 및 부산항만공사 등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된 조직이다.
- **김기숙**(도시환경최고전문가과정15기) (사)자연사랑 회장은 12월 26일 (사)자연사랑, 대한민국+청소년연합, 데일리대한민국 주최, 자연환경건설신문 주관, 환경부 후원으로 '자연, 생명, 지구, 하늘, 땅, 물, 자원사랑 분야별 활동 공모 및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한국마사회 신용산지점 8층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 **김영걸**(도시환경최고전문가과정16기) 펠로우는 한양대 도시대학원 2012 도시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 **남궁근**(도시환경최고전문가과정16기) 펠로우는 2013년 1월 30일 (사)자연보호중앙연맹 부총재에 취임하였다.
- **정인환**(도시환경최고전문가과정16기) (전)동부건설 부사장은 지난 7월 동부월드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 **이문호**(도시환경최고전문가과정16기) 송씨환경디자인연구소 대표는 2011 삼성동 도시형 생활주택 완공하였고, 내년 4월에는 방배동 사옥건설 준공예정이다.
- **최건업**(도시환경최고전문가과정16기) 아정건설(주) 대표는 지난 11월 문경 오미자 와인공장인 '오미나랴'를 준공하였다.
- **이중호**(도시환경최고전문가과정16기) 펠로우는 서울사회심리치료센터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 **유완중**(도시환경최고전문가과정16기) 준원도시경관연구소 대표는 지난 8월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 **김성우**(도시환경최고전문가과정16기) (주)하우드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표는 수원SK문화센터(SK아트리움)에서 매일경제 2013 토목건축기술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도시환경최고전문가과정 18기**(회장 서익권/유민건축)는 지난 12월 10일 자치회 총회 및 송년모임을 갖고, 새 회장단을 구성하였다. 회장: 차광찬 (주)건우이앤씨 대표, 총무: 오찬재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소장, 김권욱 (주)엠와이이앤씨 부사장이 자치회를 이끌게 되었다.
- **도시환경최고전문가과정 20기**(회장 여용상/가아랜드(주) 대표이사)는 지난 12월 2일 자치회 총회 및 송년모임을 갖고, 새 회장단을 구성하였다. 회장: 이문구 주식회사 다짐 대표이사, 총무: 박래훈 (주)에이비라인건축사사무소 소장이 함께 자치회를 이끌게 되었다.
- **도시환경최고전문가과정 22기**(회장 송두영)는 지난 12월 10일 자치회 총회 및 송년모임을 갖고, 새 회장단을 구성하였다. 회장: 최광주 광덕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 총무: 최송휴 대한통운(주)환경지점 지점장이 함께 자치회를 이끌게 되었다.
- **김봉섭**(도시환경최고전문가과정24기) (주)단천 대표이사는 지난 2013년 11월 8일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 786-1번지 소재 단천 공장에서 '새로운 석재'와 '쇼나조각'으로 고마운 분들을 모시고 STONE & GALLERY OPEN 행사를 가졌다. (www.daanceon.co.kr)
- **도시환경최고전문가과정 25기**(회장 김종일/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대표, 총무 서주환/(주)미림에코텍 대표이사)는 지난 12월 4일(수)에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룸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행사중 자치회 전,회장인 김봉규 (주)유진엔비티 대표이사과 전,총무인 이기세 현대조경개발(주) 대표이사께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이 자리에는 특별히 이완영 환경대학원 동창회장과 최막중 환경대학원장이 함께해 자리를 크게 빛내주었다.
- **도시환경최고전문가과정 29기**(회장 이상헌/코스모전기(주))는 지난 12월 2일(월) 자치회 총회 및 송년모임을 가졌다. 이상헌 회장의 연임이 결의되었고, 이회장은 인사말에서 "자치회와 SGS동창회의 소통과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석부회장 황영심 지오북 대표, 수석총무 백승진 홈플러스 이사, 총무 양희범 (주)시아플랜건축 본부장, 총무 조은혜 (주)승보이앤씨 건축사사무소 이사도 연임되었다. 이어진 여흥의 자리에는 특별히 이영성 주임교수, 최명철 공동주임교수와 김경민 부주임교수가 함께해 펠로우분들의 사랑을 받았다.
- 현재 진행 중인 **도시환경최고전문가과정 30기**는 11월 7일(목) 자치회 총회를 통해 회장단이 구성하였다. 강완수 대동녹지건설(주) 대표이사가 회장에 추대되었으며, 강회장은 수락인사말에서 "30기는 참 의미 있는 기수이다. 지난 30년의 전통을 잘 살리고, SGS동창회를 잘 발전시켜 후배기수에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자"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전태효 삼진엠펜피에스(주) 대표이사가 사무총장을 맡아 자치회 운영을 돕게 되었다.
- **한정애**(도시환경최고전문가과정30기) 국회의원은 지난 12월 12일(목)에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하안봉투"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강완수 자치회 회장을 비롯한 10여명의 동기 펠로우가 함께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환경대학원 발전기금

환경대학원 교수 발전기금 약정식

서울대발전기금은 지난 11월 27일 '환경대학원 교수 발전기금' 약정식을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들은 후학 양성과 연구력 증진을 향한 마음을 모아 발전기금 2억 원을 쾌척했다.

환경대학원 교수들은 개원 40주년을 맞은 환경대학원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도약해 나가는데 발전기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금 조성에 환경대학원 교수 19명(이미 발전기금을 쾌척해주신 교수님을 제외한 전원)이 참여했으며 조성된 기금은 환경대학원의 교육·연구 활성화에 활용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오연천 총장, 임정기 기획부총장, 최막중 환경대학원장 등 환경대학원 교수 15명이 참석했다.



환경대학원 동문 발전기금 약정안내

환경대학원 개원 40주년을 맞이하여 대학원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한 기금 모금을 활발하게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발전기금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문 및 잠재적 기부자를 발굴하여 발전기금을 모금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대학원 개원이후 납입액 기준으로 2013년 12월까지 환경대학원에 발전기금을 기탁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자 발전기금 기부자 명패를 제작 중에 있으며, 2014년 1월 24일 환경대학원에서 기부자 명패 제막식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환경대학원에 발전기금을 기탁해주신 분들은 다음과 같다(2013년 11월 납입액 기준)

1억 원 이상	회원구분	출연자명
	법인	유한킴벌리(주)
	단체	고 임길진교수 기념기금
		환경대학원 2013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회원구분	출연자명
	법인	맥한상사

1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	회원구분	출연자명
	법인	(재)경남교육문화재단 (주)오이코스
		(재)동화산업장학재단 (주)풀무원
	단체	(주)미라보건설 대창기업(주)
		최고위과정 11기 일동 최고위과정 28기 일동
		최고위과정 14, 16, 18기 일동 최고위과정 2기 일동
		최고위과정 23기 일동 최고위과정 4기 일동
	개인	김용담 (최고위과정 15, 21기) 이정전 (환경대학원 교수)
		박종화 (환경대학원 교수/ 석사 74) 이희연 (환경대학원 교수)
		양병이 (환경대학원 교수/ 석사 68) 조백일 (최고위과정 6기)
		이도원 (환경대학원 교수/ 석사 80)

1백만 원 이상 ~ 1천만 원 미만	회원구분	출연자명
	법인	(주)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대이종합조경(주)
		(주)씨엠중부 에치투엘(주)
		(주)유한메디카 조경설계서안(주)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간원 진흥기업(주)
		(주)청록환경엔지니어링 한국수자원공사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한국오길비앤매(주)
		(주)현암사 한국채분(주)
	단체	Urban Inquiry Group 최고위과정 16기 일동
		썰썰한 동화 준비위원 일동 최고위과정 5기 일동
		최고위과정 10기 일동 환경계획연구소
	개인	강경해 (최고위과정 26기) 양운재 (환경대학원 교수/ 석사 74)
		구본경 (석사 86) 윤순진 (환경대학원 교수)
		권 완 (석사 74) 이신영 (석사 91 이영화의 부친)
		김광두 (최고위과정 37기) 이재근 (석사 79)
		김광중 (환경대학원 교수/ 석사 77) 이재익 (석사 75)
		김기영 (최고위과정 17기) 임강원 (환경대학원 교수/ 석사 68)
		김기호 (환경대학원 교수) 장수은 (환경대학원 교수/ 석사 97)
		김대환 (최고위과정 13기) 장영기 (석사 83 박사 86)
		김무웅 (석사 04 김수정의 부친) 장일영 (석사 86 장기윤의 부친)
		김수근 (대성그룹 회장) 전병우 (석사 74)
		김수길 (최고위과정 17기) 전상백 (석사 82)
		김안제 (환경대학원 교수) 전상인 (환경대학원 교수)
		김이환 (석사 68) 전의찬 (석사 85 박사 88)
		김정욱 (환경대학원 교수) 정인영 (석사 08)
		김학명 (최고위과정 9기) 조동성 (최고위과정 17기)
		김형국 (환경대학원 교수) 주정열 (석사 83)
		노만영 (석사 86) 최관영 (석사 73)
		류원규 (석사 73) 최상철 (환경대학원 교수)
		박중배 (석사 69) 최희경 (석사 94)
		박형석 (석사 72) 홍성민 (서울대학교 교직원)
성종상 (환경대학원 교수/ 석사 84 박사 97) 홍성표 (석사 기 최고위과정 17기)		
심재석 (최고위과정 26기) 황기원 (환경대학원 교수/ 석사 73)		

발전기금을 출현한 동문들을 위해 환경대학원에서 발간하는 이슈 중심의 전문지인 'e-환경논총'의 광고란에 요청이 있을 경우,

“동문들의 기업 광고 및 소개”를 실어드립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